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弘報資料 開發을 위한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내용은 北韓의 高等教育 實態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서 政策研究資料로 제공되는 것임.

北韓의 大學生活 實態에 관한 研究

— A Research on the Real State
of Campus Life in North Korea —

研究執筆 尹 炯 憲

(教育弘報室
補 佐 官)

國土統一院 教育弘報室

註 意

- 이 책자는 大學生들의 統一 安保觀 定立과 北韓大學生들의 實情에 대한 批判力을 함양하기 위한 政策研究資料로 편찬한 것입니다.
- 이 책자는 배포받은 사람이 외의 所有와 閱覽을 禁하며 發行機關의 허가없이 複製·複寫를 할 수 없습니다.

머 리 말

當初 本 研究報告書는 弘報資料 開發計劃에 따라 슬라이드로 製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大學生活에 관한 資料를 수집, 슬라이드 原案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종래의 弘報用 슬라이드가 청소년, 특히 知的 欲求가 왕성하고 批判的인 大學들에게 期待效果가 미흡했던 점에 有意, 관련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조사와 보다 심층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논문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正直이 가장 좋은 方策”이라는 名言과 같이 학술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客觀的인 實證資料를 대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같은 신분을 가진 北韓의 大學生들에 관한 生活實相을 통해 北韓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契機가 되게하려고 하였다.

이와같은 執筆意圖에 보다 충실을 기한 나머지, 本稿의 내용중에는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기에는 이른 북한자료가 포함되어있다는 의견에 따라 당원의 ‘統一論叢’에 게재키로한 편집계획을 변경, 對外秘 政策研究資料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소정 기한이 지나면 특수취급으로 文件化하여, 근래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있는 대학생 통일·안보의식에 대한 제도용 참고 자료로서 또한 일부 대학생들의 左傾化 現象에 대해 效果的인 설득방안 자료로서 보다 폭넓게 기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 6월 중순이래 가만 앉아있기조차 견디기 어려웠던 지독한 무더위와 ‘북한의 대학생할’에 관한 자료 찾기가 그야말로 말할수

없이 어려웠던 가운데, 筆者 나름대로 渾身の 努力을 傾注하여, ‘북한의 대학생 활’ 연구를 위해서 스스로 부끄럼 없는 정열을 쏟았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 선배들 앞에 감히 땀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본 연구보고서가 탄생하기까지는, 金東燮 실장님, 金炳璘 담당관님, 曹峙鉉 담당관님, 金京雄 보좌관, 朴贊奉 사무관, 李貞模 양 諸氏들에게 힘입은 바 크다. 이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보답하는 뜻에서, 앞으로 보다 나은 논문이 되도록 보완하려고 한다.

1981. 12.

尹 炯 惠 올림

目 次

I. 序 論	3
II. 北韓 教育의 概要	7
III. 大學入學 過程과 要件	24
IV. 大學生들의 校內生活	32
V. 大學 軍事訓練 實態	40
VI. 大學生들의 團體生活	50
VII. 卒業後의 社會進出	62
VIII. 北韓의 「人間改造」 모델	68
IX. 結 論	85

圖 · 表 目 錄

I. 圖表

1. 黨 統制下的 教育政策 · 行政	14
2. 北韓의 人民教育 體系圖	17
3. 大學入學 推薦 및 選拔 過程	27
4. 北韓 大學生의 日課	37
5. 北韓의 大學軍事教育 指揮體系	43
6. 大學의 黨 指導體系 및 社會動員組織	51
7. 「人間改造」 工程 모델	69
8. 「人間改造」 方式 모델	71

II. 表

1. 北韓의 大學種別 現況	21
2. 北韓의 海外語學研修 現況	36
3. 南北韓 大學軍事教育 比較	47
4. '70年代 以後 越南歸順者 體位狀態	77
5. 韓國民의 年齡別 體位 平均值	78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大學은 일찌기 플라톤의 아카데미 以來 眞理探究, 人格陶冶, 學問研究의 殿堂으로 발전하여왔다. 北韓에서는 “教育事業도 革命事業”이라고 하는 革命觀에 立脚하여, 大學마저 그 使命과 本質을 엄청나게 歪曲시키고있다.

같은 韓民族이 사는 北韓땅에는, 大學이 革命基地로서, 大學生은 革命戰士로서만이 그 存在價値를 부여받고있다.

北韓의 大學은 勞動黨의 절대적인 指揮·監督下에 大學 黨委員會로 하여금 大學生들의 私生活을 包含하여, 大學 全般에 관한 行動指標와 思想管理의 울타리를 쳐놓고 授業을 除外한 모든 課外活動을 주관하는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大學委員會라는 칸막이 속에서 노동을 통한 사상 단련을 시키고있다. 또 하나는 「大學敎導隊」라는 틀 속에 대학생 전원을 편성, 戰鬪兵化된 초급지휘관으로서의 政治學習과 實戰訓練을 쌓고 있으며, 女大生 全員은 「朝鮮 民主女性同盟」 大學委員會라는 노동당 外廓團體에 加入시켜, 政治社會 組織生活에의 參與를 積極 장려하여 女性들에 대한 脫家庭化의 前衛隊를 量産하는 裝置가 되고있다.

人間改造 裝置로서, 北韓에서의 寄宿舍란 임의로 入舍와 退舍를 할 수 있는 대학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흡사 군대의 內務生活과 같은 하나의 統制裝置이다.

이밖에 大學 黨委員會 傘下에는 學生黨員의 規模에 따라 各級 初級

黨團體를 만들어, 黨細胞의 구성원으로 學生이자, 黨員으로 政治活動을 벌이고 있는 캠퍼스內的 무서운 파수군인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人間改造 過程에, 北韓 大學生들에게 가해지는 政治思想 敎養을 통한 共產主義的 人間化를 위한 敎育場面에서의 各種 統制裝置가 內容面에서 構造的이고, 形式面에서 制度的이고, 質的으로 철두철미 敎條的 이고, 量的으로 大規模 量產體制고, 時間的으로 半永久的인 反復性을 지니고 있고, 空間的으로 外部世界와 思潮에 철저히 封鎖되어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統合에 대하여 可恐할 根源的인 障礙要因이 되기에 必要充分한 條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意識, 價値, 行動의 異質化는 다른 어떤 分野에 있어서의 異質化 現象보다도 심각한 問題가 되기 때문이다. 現在로서는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現實을 直視해야 하며, 分斷以後 持續的으로 強化되어온 共產主義的 人間改造 作業은 충분히 把握되고 比較·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統合 準備段階, 統合過程 나아가 統合後를 대비하여 實質的으로 가장 중요한 問題가 될 것으로 믿는다.

秘密의 장막에 가리워져 있는 北韓의 大學生生活을 公開하고 그 實態를 客觀性 있는 資料를 통해 立證함으로써 大學生層 靑少年들에게 南北韓의 現實을 直視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 또한 統合에 대한 召命意識을 북돋워주는데 本 論文의 또 하나의 意義가 될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이것만은 꼭 세상에 올바로 알려야겠다는 일종의 충동적인 使命感에서 本 稿를 執筆한다.

2. 研究의 對象, 範圍 및 方法

北韓의 教育中에서 大學教育, 그 가운데서도 概念規定이나 理論定立과 같은 觀念的인 問題는 北韓의 教育一般에 대한 理解를 돕는 水準까지만 取扱하고, 주로 北韓 大學生들의 校內 日課 및 課外活動등 生活 全般에 대한 實態 把握에 重點을 둔다.

北韓의 教育一般에 관한 理論的·制度的 바탕을 理解함으로써, 北韓 大學生들의 生活相을 보다 體系的으로 把握하기 위해, 北韓의 最高 教育綱領이자 教育의 指針으로서, 1977年 9月 7日 黨 中央委員會 第5期 第14次 全員會議에서 採擇된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의 內容들을 해당 分野別로 檢討한다. 다음으로 北韓 教育制度的 根幹이 되는 北韓의 教育政策과 教育行政, 學制에 따른 各 教育體系 및 概括的인 北韓의 大學現況을 調査한다.

그리고 大學入學 過程에서부터, 在學中 主要 教科課程, 日課 및 週間行事, 各種 團體·組織을 통한 課外活動, 軍事訓練實態, 寄宿舍生活 및 卒業後의 社會進出에 이르기까지 大學生活 全般에 대한 實態를 究明하기 위해, 北韓의 新聞, 雜誌, 各種 著作物, 日本의 左傾的인 刊行物, 國內의 北韓關係 著書, 雜誌, 新聞, 通信, 國土統一院의 各種 北韓關係 刊行物, 그리고 分斷以後 金日成 綜合大學등 北韓에서 大學을 다녔거나 마친 越南者들의 體驗內容, '70年代 以後 歸順한 사람들의 訊問調書 및 證言內容, 關係當局의 情報資料등을 根據로 比較·分析, 綜合을 통해 信賴度를 提高하려고 하며, 主觀的인 價値判斷이나 先入見을 최대한 排除한다.

參照한 關係當局의 情報資料는 時間적으로 이미 對外秘의 성격을 상실

하였지만 脚註로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또 하나의 資料選擇의 苦衷은 同一한 事項에 대해서 각기 얼마간 相異한 內容이 상당수 發見되었으므로 共通點을 찾아내거나 相互補完하여 보다 충실을 기하려고 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資料를 출처로 명시하기가 모호할 때는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分析의 道具로서 筆者가 抽出한 「人間改造」 모델을 包括적으로 援用한다.

Ⅱ . 北韓 教育의 概要

北韓 教育의 理論的·制度的 바탕을 이해함으로써,北韓 大學生들의 生活을 보다 體系있게 把握하기 위해 北韓의 教育 特性이 되는, 소위 ‘사회주의 교육’의 原理, 內容, 方法과 黨 統制下的 教育政策·行政 및 北韓의 一般·特殊·成人 教育體系, 그리고 北韓의 大學 現況에 대해서 分析·檢討한다.

1. ‘사회주의 교육’의 原理

北韓의 教育은 그들의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 發展에 따라, 그 內容을 조금씩 달리해 왔는데, 오늘의 教育 目的과 方向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77年 9월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강령)’이다.

김 일성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배운 지식을 革命과 建設에 더 잘 써먹을 수 있다. 로동계급의 革命思想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며, 공산주의 革命思想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¹⁾ 고 教育의 前提條件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첫째,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註1) 김일성 저작 선집, 제 7권(1978년도판), p. 358

한다. 는 社會主義 教育의 基本 原理를 明示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에 전적으로 政治性을 內包시키고 있는 바, 教育學的 原理가 아니고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 原則을 고수하는 북한의 교육 목적은 ‘김 일성과 당 그리고 공산주의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실례로서 ‘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라는 題下의 북한의 로동신문 記事에서, “우리는 올해에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 보건, 체육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사회주의 민족문화 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라는 김 일성 신년사의 내용 일부를 발췌, 인용·보도한 이 기사에서, 평양 제 1교원대학 학장 최 영순은,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革命家로 튼튼히 키워야 革命과 建設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代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교원들은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겠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을 숨은 영웅들처럼 黨과 革命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믿음직하게 키우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²⁾ 라고 하는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을 金日成과 黨 그리고 革命에 목숨바쳐 충성할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치사상 교육을 위주로한 교육사업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다.

註 2) 로동신문, '81.1.16, 1면

2.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로동계급의 革命思想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며, 공산주의 革命思想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김 일성이가 강조한 바를 앞에서 지적한대로 소위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은 社會發展과 個人의 成長을 위한 教育學的인 내용에 우선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革命性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政治思想 教養이며, 다음으로 科學技術教育과 體育教育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주요 내용은 김 일성 주체사상으로서, 학생들이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革命的인 世界觀이 서고 共產主義的 혁명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인 論理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 공산당의 모든 路線과 政策은 김 일성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며,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黨 政策 교양과 革命傳統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黨 政策化하여야 한다. 모든 과목의 교수 내용을 黨 政策으로 일관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革命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배우며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고 그들의 테제에서 밝힌대로, 初·中等教育機關의 一般教育 段階와 高等教育機關의 專門教育 段階에서 自然科學 分野 및 社會科學 分野, 심지어 藝能科目까지도 黨의 路線과 政策을 理論

註 3) 前掲書, 김일성 저작 선집, pp. 371-372

的으로 깊이있게 해석, 선전하고 나아가 黨政策 具現과 혁명실천에 이
바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과학기술교육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체육교육의 사명은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⁴⁾ 하는 것을 테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북한의 체육교육은 한국에서와 같이 ‘健全한 精神은 健康한 身體에’
또는 ‘體力은 國力’이라는 國民保健의 입장이 아니고 國防과 勞動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 사상 및 과학기술교육 다음으로 다른 과목에 우
선하여 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사회주의 교육’의 方法

소위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의 方法으로서, 첫째, 깨우쳐주는 교수
교양, 둘째,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셋째,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네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
육의 병진, 이러한 북한의 5대 ‘사회주의 교육’ 方法을 테제에 명문화
시키고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 교양’이란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기본 방법인
학습을 통한 人間改造로서 상대방이 설복될 때까지 해설을 반복하는 洗
腦式 教授法과 그들이 말하는 소위 ‘肯定的 模範’으로 감화시킨다는 思
想教養 方式이 있다. 肯定的 模範 教養法은 학생 노력동원이나 ‘천리
마’ 학급 운동과 같은 각종 사회주의 競爭運動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나

註 4) 上掲書, p.372

개인을 내세우거나 金日成과 그의 家系를 날조, 偶像化한 萬景臺의 金日成 生家등 革命戰跡地 踏查, 金日成이 걸었다는 소위 ‘배움의 천리길’ 行軍등 ‘따라배우기’ 운동을 통하여 競爭을 붙이고, 채찍질하고, 갖가지 자극을 유도하여 공명을 일으켜서 널리 一般化시키는 수법을 뜻하는 것이다.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이란 노동을 통한 人間改造를 말하는 것으로 金日成의 말대로 “집단노동은 사람들을 사상교양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테제에서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화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품모를 개조한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革命性과 組織性을 본받는다.”⁵⁾고 명시되어 있듯이 教育的인 側面에서의 實習이나 見學의 次元이 아니고, 학생들을 勞動階級化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단련의 조직적인 도구로서 이용하고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의 方法 가운데,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란 團體生活을 통한 人間改造 方式으로서, 그들의 테제에서 “청소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⁶⁾라고 한바와 같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革命思想 고취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註 5) 上掲書, p.376

6) 上掲書, p.377

위한 체계적인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집단·조직활동에 의하여 奉仕精神 涵養, 協同과 團結心, 公衆道德心 鼓吹 등 教育의 一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란 온 사회의 革命化를 통한 人間改造 方式으로 그들의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서, “학생 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 시설들은 학생 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放送, 出版, 映畫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사상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⁷⁾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는 학생회관 등 학생들을 위한 文化施設과 심지어 圖書館, 家庭까지도 革命化하여 共產主義 思想教養의 道場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순수해야 할 言論, 出版, 심지어 藝術의 영역까지도 革命的인 內容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共產主義的 人間改造의 方便으로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은 평생을 통한 인간개조로서, 그들의 테제에서,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높은 革命的 世界觀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상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단계이며 사람들에게 대

註 7) 上掲書, pp.379-380

한 사상교양의 연속적 과정이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첫 공정이다.”⁸⁾ 라고 한 것과 같이, 이것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平生教育’의 의미가 아니고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맡겨진 이래로 한 인간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일련의 사상교양의 단계로서, 共產主義人間製造의全體工程이 되는 것이다.

4. 北韓의 教育政策과 行政

북한에서는 교육 전반에 걸친 指揮, 統制 및 評價를 노동당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로서 中央黨 科學·教育部가 教育政策을 수립, 秘書局의 認准을 받아 政務院 教育委員會에 지시하게 되며, 지시된 政策執行에 대한 狀況은 地方黨 즉, 道 또는 直轄市黨 教育部 및 그 다음으로 市 또는 郡黨 教育部의 指揮, 監督, 檢閱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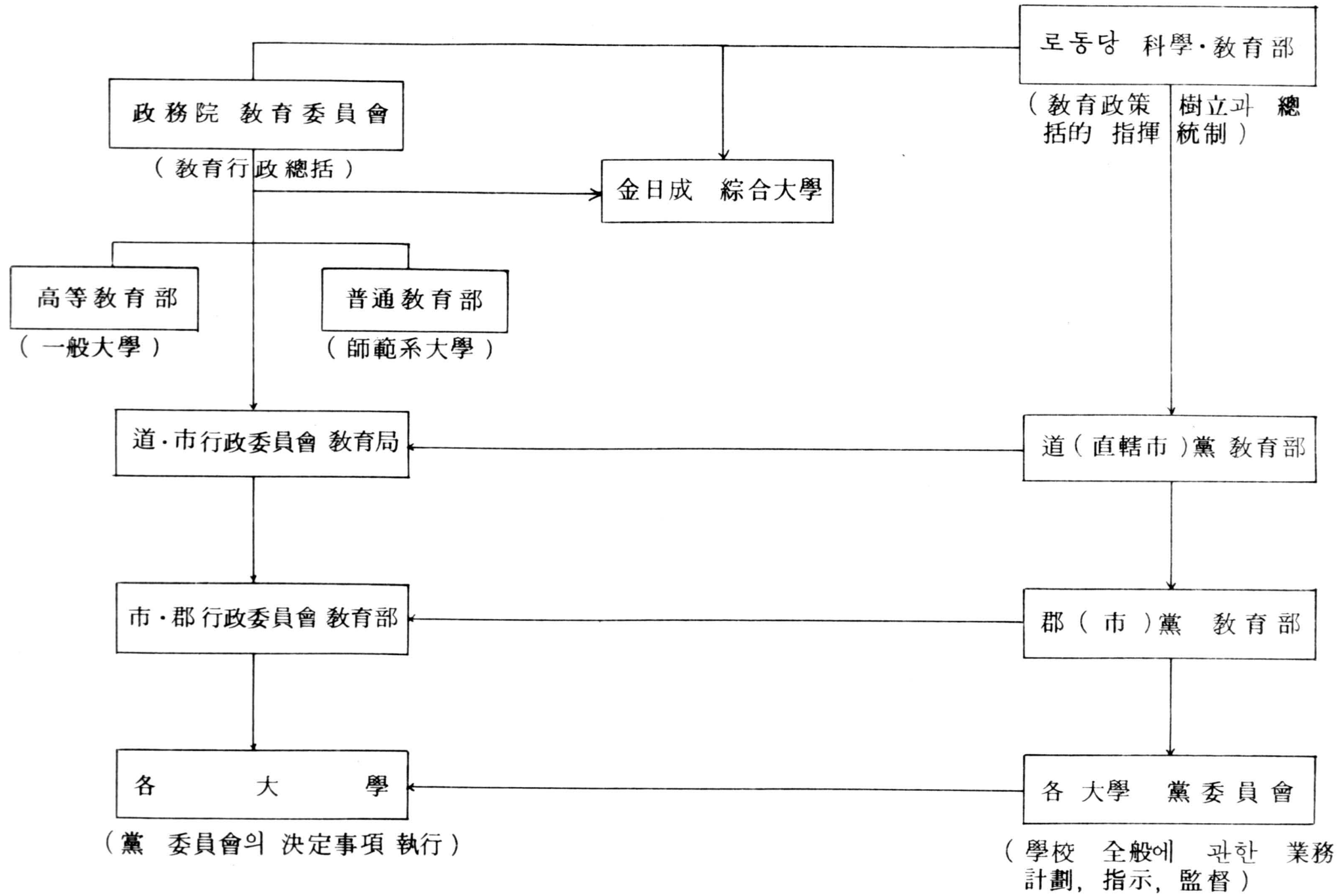
教育政策에 대한 行政執行機構로서는 中央에 普通教育部와 高等教育部가 있고 地方에는 道 또는 直轄市 行政委員會 教育局과 그 아래 市·郡 行政委員會 教育部가 있다. 普通教育部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육 및 敎員養成機關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高等教育部는 일반대학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예외로 북한의 支配階級을 배출하고있는 유일한 종합대학인 김일성 대학은 여타 대학과는 달리 정무원 직속으로서, 교육위원회의 행정지도와 中央黨의 직접적인 指揮·統制를 받고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註 8) 上掲書, p.381

<圖表 1>

黨 統制下的 教育政策・行政



教育政策을 수립하고 指示, 監督하는 黨 中心의 學校 指導體系는 <圖表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執行過程까지도 縱的으로, 橫的으로 강력하게 黨에서 統制하고 있으며, 실제로 黨의 統制力은 학교 人事問題에 까지 절대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학교 관리의 형식상 責任者는 대학의 경우, 총·학장이지만 實權은 大學 黨委員會에서 장악하고있다. 黨 責任者는 제 1 부총·학장이 되기 때문에 총·학장은 行政體系上으로는 上位에 있지만, 中央黨이 과견한 專任 黨 責任秘書인 제 1 부총·학장으로부터 黨的 統制를 받게된다.

북한 공산당은 이와같이 학교 관리에 있어서 총장과 제 1 부총장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놓고 있으며, 제 1 부총장은 대학내의 各級 黨 組織과 學生團體를 관장하고 대학내 모든 정치사상문제를 責任지고있으므로 모든 강의의 사상성 여부를 수시로 검열할 뿐 아니라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思想動向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있다.⁹⁾

黨 責任秘書가 대학 당위원회, 학부 당위원회, 학년 초급 당단체, 당 세 포등을 통하여 대학 관리운영과 수업 및 교수교양의 내용, 학생들의 生活動態에 이르기까지 대학 전반에 관한 業務計劃, 指示·監督등 黨的 統制를 실시하고있다.¹⁰⁾

註 9) 北韓全書, (서울 : 極東問題研究所, 1980) p.598

10) 上同

5. 北韓의 一般教育 體系

新學制에 의하면, 北韓의 現行 一般教育 體系는 <圖表 2>에서와 같이, 正規過程으로서 初等教育過程인 4년제 인민학교와 中等教育過程인 중등반 4년, 고등반 2년의 6년제 고등중학교 그리고 高等教育過程인 4-6년제 종합대학, 단과대학, 사범대학등 각종 대학을 두고 있다. 이밖에 대학원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과정으로서 3-4년제 연구원과 2년제 박사학위 과정의 박사원이 있다.¹¹⁾ 북한은 경우,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수여치 않고, 연구원 과정에서 석사 대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인민학교 就學年齡을 종전의 만7세에서 만6세로, 그리고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 과정을 4년제로 단축하여, 출신 성분이 좋은 당 간부 자제이거나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圖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16세이면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5세의 어린이에게 대해서는 유치원 '높은반'에서 1년간 就學前 義務教育을 실시하고있다.¹²⁾

고등중학교를 거쳐 진학할 수 있는 高等教育過程은 2-3년제 고등전문학교,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 고등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4-6년제 사범대학 및 一般大學이 있는데 教育年限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대학, 함흥 화학공업대학등 일부 국책대학 5년, 의학대학 6년, 기타대학은 4년제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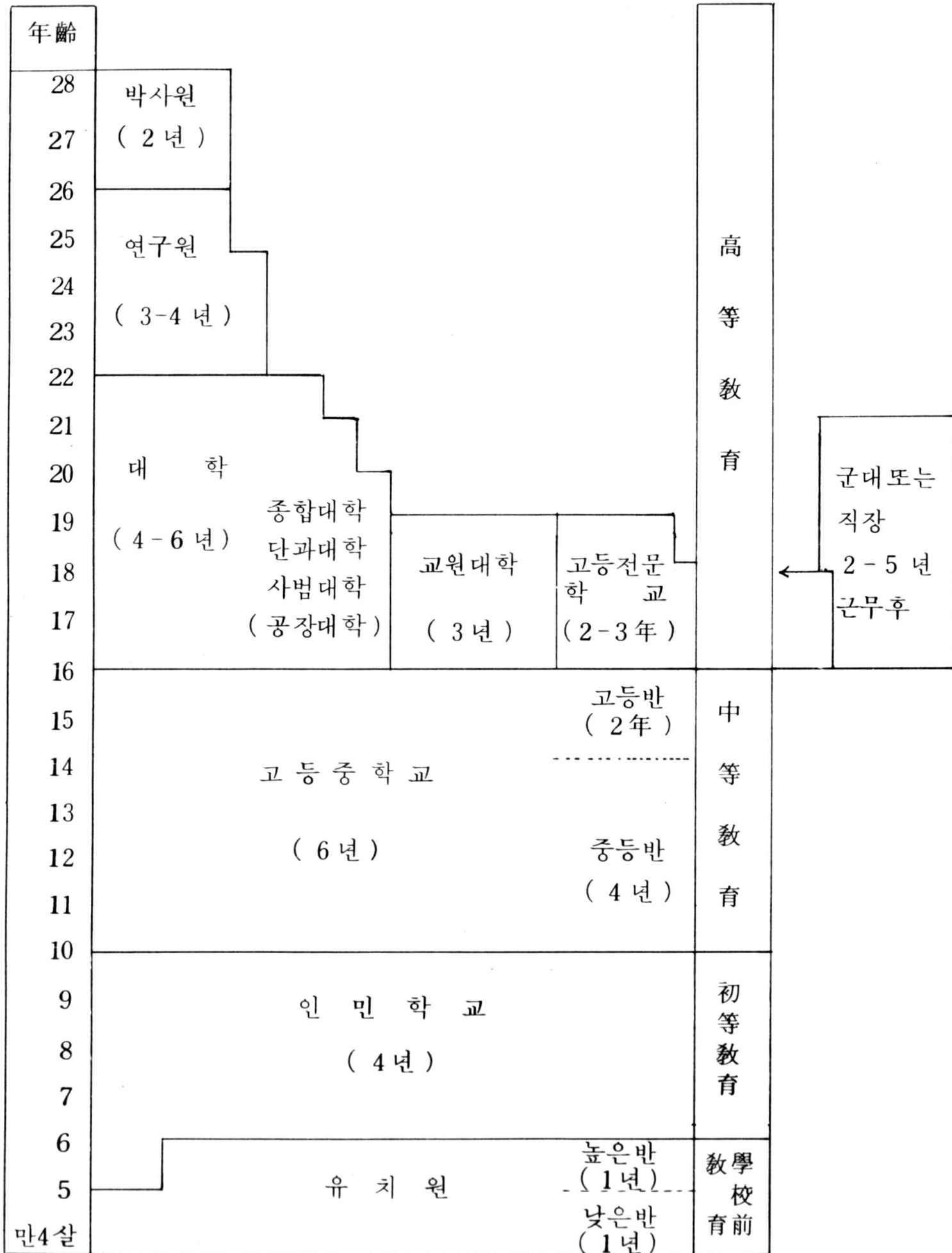
<圖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卒業한 後, 原則적으로 군대나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2-5년간 복무한 연후에 대학

註 11) 조선중앙년감 (1979년도판), p.281

12) 어린이 보육교양법 (1976.4.29), 제4장 제36조

<圖表 2 >

北韓의 人民教育 體系圖



군대 또는
직장
2-5년
근무후

(근거 : 조선중앙년감 1978 및 1979년판)

에 進學할 수 있다. 다만, 예외 規定으로 당·정권기관의 간부자제와 학업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은 卒業後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있다.

6. 北韓의 特殊教育 體系

北韓은 對內外 心理戰活動 및 國際關係 交渉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特殊要員 養成을 위해서 音樂, 舞踊, 造型藝術, 外國語 및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體育등 전문분야에 대한 早期 特技教育을 실시하고있다. 또한, 대부분 과장 내지 날조된 항일 및 6. 25 韓國戰爭에 參戰하였던 투사들의 子女, 소위 ‘革命 遺子女’들에 대한 特別 優待教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혁명유자녀 학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고위 간부급 자녀들의 입학을 허용하여 더욱 특권층 귀족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早期 特技教育을 받은 자는 대부분이 卒業後에도 해당 분야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며, 대학 卒業後에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外國과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므로 입학예정자에 대한 黨的 成分 및 身元調査가 엄격히 시행된다. 1979年 현재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유치원과 인민학교에서 고등중학교까지의 과정인 11년제 음악, 무용, 조형예술 학교와 인민학교 졸업예정자중 외국어에 재능있는 자가 입학할 수 있는 7년제 외국어학교 그리고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중 체육 특기자, 공예부문 특기자가 각기 입학할 수 있는 4년제 체육학교와 공예학교가 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革命的 種苗場이라고 하는 혁명유자녀 학원은 1958년 이래 11년제로 개편되어 유치원과 인민학교로부터 고등중학교까

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있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에도 군복차림으로 군대식 規律下에 집단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黨의 後備隊로, 나아가 미래의 핵심 간부로 육성됨에 따라 졸업후 군 또는 특수요직에 진출하도록 배려하고있다. 그 현황을 보면, 평양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김 일성의 생모의 이름을 딴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해주 혁명유자녀학원과 인민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혁명유자녀들과 영웅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중 외국어에 발전성이 있는 자만이 입학이 허가되는 7년제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이 있다.¹³⁾

이외에 북한의 세습후계자로 부각시키고있는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이 다녔던 평양 남산학교가 혁명유자녀학원 이상으로 핵심간부의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학교로서, 일반 학생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특혜를 누리고있다.

7. 北韓의 成人教育 體系

북한에서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과후, 대개 야간에 성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수준과 정치사상적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成人教育機關을 설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부족한 技能工 양성을 목적으로 직장학교인 3년제 근로자 고등중학교, 技術工 또는 技手 양성을 목적으로 한 4년제 공장고등전문학교 그리고 技術者 또는 技士 양성을 위하여 5-6년제 공장대학등을 설치하였다.

註 13) 前掲書, 北韓全書, p.601

공장·농장·어장·광산대학은 이 학교를 설치하고있는 공장, 기업소, 농·목장, 어장, 광산등의 자체자금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行政體系上으로는 해당 經濟 各 部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고, 직장대학을 包含하여 모든 대학의 教育내용 지도는 高等教育部의 유일한 지도를 받게 되어있다. '80년 10월 현재 북한내에 설치되어있는 공장대학은 약 56개, 기타 농·어장등의 대학이 약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一般大學의 夜間部는 通信教育網의 확충, 수강시간의 비일관성, 학습의욕의 저조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점차 감소되어, '69년도의 경우 3개 대학만 야간학부를 모집하였다. 반면에 통신학부는 의대, 예능계 및 사범계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되어있다. 북한에서는 직장 근무자를 위해 통신교육망의 확대에 주력하여 교원의 현지 파견, 년 2회 등교 수업 실시등 낙후되고 부족한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절대 부족한 교육시설과 교원의 보충을 위하여 통신학부 교육이 장려되고있다.¹⁴⁾

이밖에 黨·政權機關 및 人民經濟 各 分野의 간부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 中央黨 소속인 김일성 고급 당학교,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원, 송도 정치경제대학, 인민경제대학과 각 도 및 직할시 당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共產大學등이 있다. 기타 특수학교로서 社勞靑 간부양성 및 재교육기관으로 社勞靑大學, 公安機關인 社會安全部의 간부양성 및 재교육기관으로서 社會安全部 政治大學등이 비정규 실무학교로서 특히 정치사상 교육에 역점을 두고있다.

註 14) 北韓, '80.10 月號, 北韓研究所, pp. 194-195

<表-1>

北韓의 大學種別 現況 (1980. 10. 現在)

種 別	學校數	種 別	學 校 數	備 考	
종합대학	1	예·체능계대학	4	음악, 미술, 연극, 체육대학 각 1개	
이공대학	17	특수대학	3	평양이과대학	과학자 양성기관
의학대학	10			국제관계대학	외교관 양성기관
약학대학	1			평양상업대학	상점 지배인 양성기관
농수산대학	16				
사범대학	24	공장대학	(56)	공장, 기업소 부설기술학교	
교원대학	22	기타 농장·어장 광산대학 등	(12)	농·어장·광산부설기술학교	
외국어대학	2				
경제대학	2				
			계	102 (170)	

※ 대학수 : 북한 102(170)개교, 한국 233개교 (1980.12. 현재)

8. 北韓의 大學 現況

북한의 大學 現況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綜合大學이 1개, 單科大學은 이공계 17개, 의대 10개, 약대 1개, 농수산계 16개, 사범대학이 24개, 교원대학 22개, 외국어 및 경제대학이 각 2개, 음악·미술·연극·체육대학이 각 1개, 특수대학 3개, 비정규 기술학교인 공장대학이 56개 및 기타 직장 부설기술학교인 농·어장·광산대학이 약 12개

로서 정규대학이 모두 102개 대학, 비정규대학을 합쳐 170개 대학이며, 그 중에서 사범계 대학과 공장대학 등이 무려 $\frac{2}{3}$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34개의 종합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233개 대학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유일한 종합대학은 政務院 직속의 김일성 종합대학 하나뿐이며 人文·社會系와 自然系를 망라한, 순수학문을 위한 文理科大學에 해당하는 대학교육은 김일성 대학이 독점하고있다. 이 大學의 設立目的이 ‘김일성 혁명사상과 과학기술을 몸에 익힌 공산주의 간부양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對外宣傳效果와 展示效果를 얻기 위해서 여타 대학은 극도로 궁핍화시켜놓고 북한이 黨 政策으로 그들의 교육 및 문화부문의 표본을 삼기위해 同 大學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타 대학과는 비교가 안 될만큼 시설 및 교육 장비, 교수진과 교수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수가 주간부 약 1만명, 야간 및 통신학부가 약 5천명, 교원이 약 1천명 이상이며, 동 대학에는 人文·社會科學 분야의 5년제 6개학부, 自然科學 분야의 6년제 6개 학부에 모두 40여개 학과와 80여개의 강좌가 있으며, 또한 학사과정의 연구원, 박사과정의 박사원을 두고있다.¹⁵⁾ 오직 共產主義理論에 입각한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제외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대학은 북한내에서는 이 대학뿐이다. 여타 대학은 이름이 대학이지 수준이하이므로 외부세계에 일체 공개되지 않고있다.

註 15) 北朝鮮研究, '75.2. 東京: 國際關係 共同研究所, pp.45-46

북한의 大學 現況중에 特記할 만한 것은 최근 극도의 부진한 經濟問題를 타결하기 위해 關係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평양 무역대학과 원산 경제대학, 商店支配人 양성기관인 평양 상업대학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西方의 科學技術導入과 고립된 國際關係를 개선키 위해 평양 외국어대학, 청진 외국어대학, 外交官 양성기관인 국제관계대학, 그리고 科學者 양성을 위해 平壤 理科大學을 設立하였다. 16)

註 16) 北韓全書, 前掲書, pp.611-612

Ⅲ. 大學入學 過程과 要件

北韓에서 대학생이 되려면? 어떠한 進學類型과 過程이 있으며, 어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大學入學 資格考査制 실시 내용과 대학입학 추천과정 및 선발기준등에 대해서 調査, 檢討한다.

1. 大學進學的 3 類型

北韓의 大學入學 資格은 1) 高等中學校를 卒業했거나 이와같은 자격을 가지고 人民經濟 各 分野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며 知·德·體를 갖춘 現職者 2) 高等中學校 卒業者로서 社會政治生活에서 모범적이며 知·德·體를 갖춘 세대군인 3) 高等中學校 卒業豫定者로서 社會政治生活에서 모범적이며 知·德·體를 갖춘 사람으로 각기 規定되어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原則적으로 職場 또는 軍隊에 2 - 5年間 服務한 연후에, 그것도 부족하여 社會政治生活에서 模範的인 者로 判定되어 소속기관 黨 委員會의 대학입학 추천을 받아야만 비로소 대학진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1), 2) 항은 일반 대학생들에게 適用되는 規定이고, 例外的인 것으로 3) 항의 規定을 便宜主義로 해석하여 모집인원의 15% 범위내에서, 黨 및 機關 간부 자제와 極小數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卒業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特惠를 누리게 하고있다.

그밖에 高等중학교 卒業生이 추천을 받아 直接 진학이 許容되는 경우는 外國語大學, 體育大學, 藝術部門 大學들과 物理學, 數學, 電子工學을 비

못하여 科學者, 技術者 양성을 위해 一部 特定 學科를 제하고는 고등중학교를 卒業한 다음 약 3년동안 군대에 服務하든가, 工場이나 農村에 나가 노동을 한 연후에, 社勞靑組織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대학생 選拔原則을 세웠다. 17)

3 進學類型에 따른 比率은 제대군인이 약 70%, 직장 재직자가 약 20%,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고등중학교 卒業者가 10% 정도인 것이다. 北韓에서는 懲兵制가 아니고 志願兵制를 採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등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出身成分이 나쁘다고 판정되면, 군대 입대가 거부되고 대신에, 공장, 농장, 목장, 어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模範的으로 일했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진학의 기회를 갖게된다.

2. 大學入學 資格考査制 實施

北韓의 대학입학 자격에 관한 總括規定을 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의 소유자는 黨의 唯一思想 體系가 確固히 서고 階級的 覺醒이 높으며 黨과 革命을 위하여 충실하게 服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와같이 出身成分 위주의 대학입학 추천을 해왔다.

일반 주민들은 高等教育에 대한 기회 박탈에 대하여, 특히 대학 진학이 出世의 길이라고 믿고있는 北韓社會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을 뿐아니라,

註 17) 김일성, 社勞靑 中央委員會 演說(1977. 2.25)

우수한 학생들이 단지 出身成分이 문제가 되어 진학의 기회가 박탈되는 事例가 빈번히 발생하자 상당한 비판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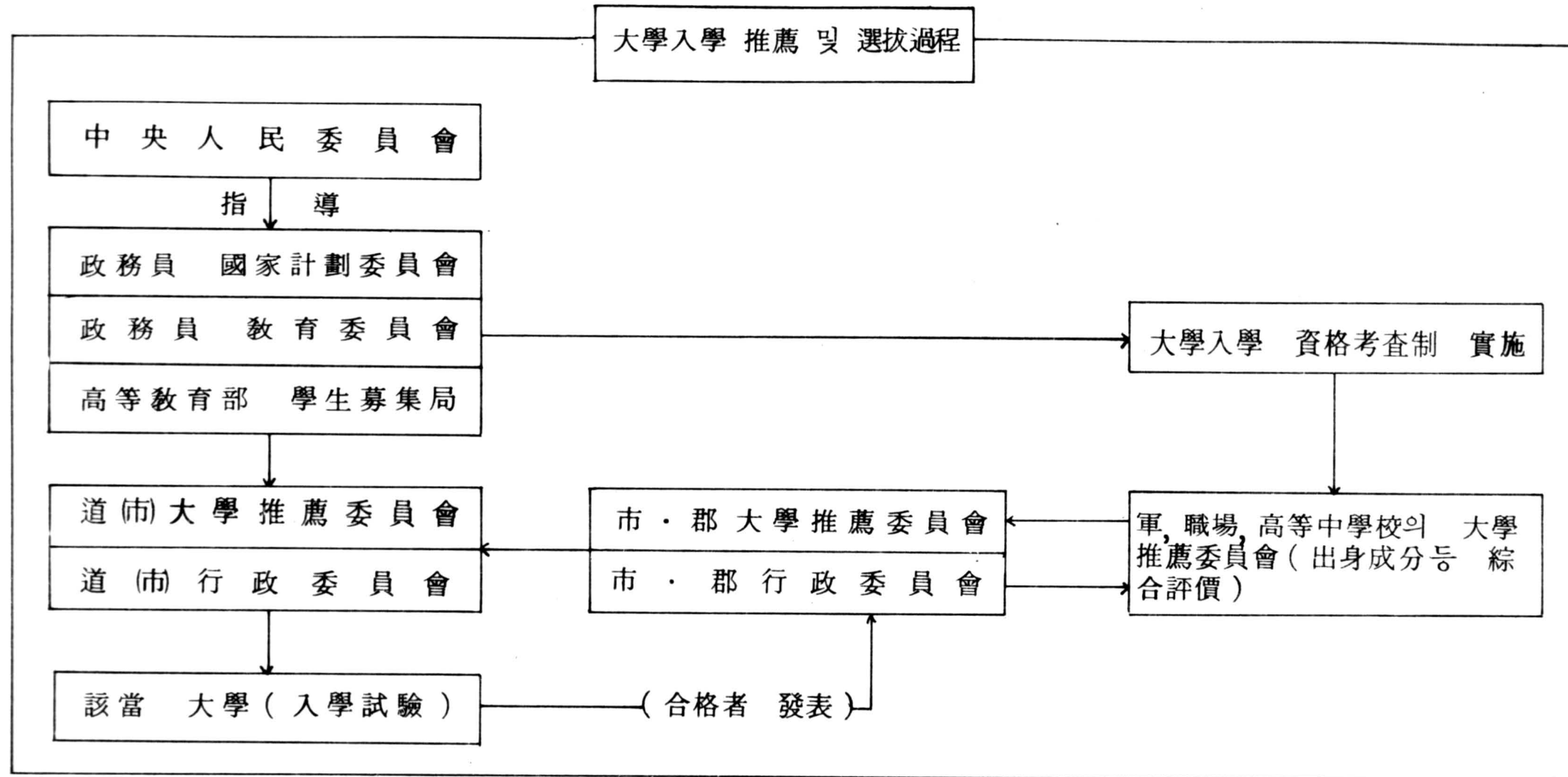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金日成의 教條主義的 社會背景에도 불구하고 苦肉策으로 '80년부터 매년 3월 政務院 教育委員會 주관으로 당해년도 高等중학 卒業者 전원에게 전 지역을 망라하여 같은 날자에 각 학교별로 教育委員會가 마련한 試驗案에 따라 大學 入學 資格考査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試驗結果는 각 道·直轄市 별로 試驗成績에 따라 合格範圍를 결정하여, 최소한도의 대학입학 資格要件을 마련한 것이다.

資格考査 合格, 그 자체가 진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소속 기관 또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의 本 考査에 합격해야 비로소 입학할 수 있게된다.

모든 社會的 價値의 尺度와 選擇의 基準을 思想에 두고있는 北韓에서 大入 - 資格考査 實施는 最初의 實績主義 (Merit System)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劃期的인 措置로 評價된다.

<圖表 3>



3. 推薦 過程

北韓에서 대학생이 되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圖表 3>에서와 같이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上 國家主權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金日成이가 主席으로 있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와 方針에 따라¹⁸⁾, 政務院 國家計劃委員會가 소요되는 大學入學 定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教育委員會는 大入資格考査 合格範圍와 각 市·道 大學生 추천위원회에 각 학교별 소요인원을 배정한다.¹⁹⁾

당해년도 高等중학교 卒業豫定者는, 입학 5개월전, 매년 3월에 실시하는 大入資格考査에 합격한 자로서, 입학원서, 최종 出身學校 卒業證 寫本 또는 大學 應試資格을 증명하는 學歷證明書, 所屬機關長 推薦書, 出身學校長과 社勞靑組織의 共同推薦書, 身體檢査表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학교장은 매년 6월 25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 行政委員會 學生募集課에 提出하여야 한다. 추천과정에는 소속기관 또는 학교의 대학추천위원회에서 출신성분, 단체생활평점, 학업성적을 綜合評價하기로 되어 있다.

教育者 및 社會團體 代表들로 구성된 市·郡 大學推薦委員會는 각 기관 또는 학교에서 제출된 志願者의 推薦內容을 土臺로 身元調查를 실시하여, 黨的 成分이 不良한 者를 제외하고 추천명단을 道·直轄市 大學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市·道 委員會는 市·郡 委員會로부터 추천 받은 인원수 대로 해당 대학으로 發送하게 된다.

註 18) 北朝鮮研究, 1978. 3. 東京: 國際關係共同研究所, p. 43

19) 北朝鮮研究, 1975. 2. p. 46

志願者는 1, 2, 3 志望까지 希望學校와 學科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黨의 方針과 人力計劃에 의거, 본인의 希望에 우선하여 결정되므로 配定받은 대학에서 入學試驗을 치러야하며, 合格者 發表는 市·郡 行政委員會 學生募集課를 거쳐 본인과 소속기관장 또는 學校長에게 서신으로 통지한다. 이러한 一連의 과정에서 各級 行政委員會는 該當 各級 推薦委員會의 指揮, 統制, 決定에 따른 行政的인 집행을 하게된다.²⁰⁾

各 推薦過程에는 허다한 不條理가 개재하고있다. 특히 合格者 發表가 公開되지않고 個別的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雜音과 不作用이 많다고 한다.

이와같이 奧妙하고 複雜多端한 大學入學 推薦過程을 실시하고있는 이유는, 北韓에서의 大學教育의 根本 趣旨가 共產主義 幹部養成이라는 基本 認識에서 출발하고있기 때문에 形式的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많은 志願者들은 자기가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추천에서 脫落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수가 많다.

4. 選拔 基準

앞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北韓에서는 教育의 機會마저 黨的 成分이나 思想性 위주로 실시하다보니 여러가지 不作用이 발생하여, '80년도부터 大學入學 資格考査를 도입하여 최소한도의 入學 資格要件을 갖추어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大學入學 推薦과 選拔過程에서, 高等教

註 20) 北朝鮮研究, 1978. 3. pp. 41-43

育의 機會均等の 側面이나 公開競爭試驗에 의한 成績基準과는 關聯이 없
는 黨性を 고려한 出身成分이 높, 즉 가정 배경이 좋을수록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으며, 또한 社勞靑을 통한 勞力動員과 各種 ‘社會主義’ 競爭
運動에 의한 政治·社會團體生活 評點이 높의 비중을 차지한다. 21)

北韓에서는 金日成 大學을 비롯하여 우수한 國策大學일수록 이와같은 選
拔基準은 엄격하게 適用되고 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각 지역 大學 推
薦委員會에서 配定받은 入學定員의 1.2 - 1.5 배수를 추천하여 極도로 進
學의 機會를 제한하게되자 志願學生들과 一般住民들의 불만이 고조되
었으므로, 脫落시킬 때 시키드라도 약 정원의 2배까지 推薦하도록 緩和
措置를 취하였다.

그 다음으로 入學成績이 높의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入學試驗은 學
校別 專攻에 따라 필답고사 및 面接試驗을 실시하며, 全 大學을 一律的
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人文·社會系는 黨政策史, 國語, 外國語, 특히 英
語, 數學, 體育, 物理, 기타 選擇科目, 自然系는 黨政策史, 外國語, 數學, 物
理, 化學, 體育, 기타 選擇科目, 藝體能系는 黨政策史, 共產主義 道德, 國語,
外國語, 數學, 實技, 體育, 그리고 敎員大學에서는 共產主義 道德, 國語, 外
國語, 數學, 物理, 體育이 各 系列의 入試科目들이다. 22) 이 가운데 黨政
策史, 外國語, 數學, 物理, 體育 科目을 各 系列, 거의 共히 入試科目으로
採擇하고있는 것은 하나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北韓
의 國家的인 關心이 어느 分野에 있는지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註21) 国土統一院, 北韓共產体制의 實態, 1981, p.84

22) 前揭書, 北韓全書, p.600

추천받은 志願者가 韓國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간 주관식 필답고사를 부과하고있으며, 또한 철저한 面接試驗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상을 검토하고 學力을 테스트하는데도 상당한 비중을 둔다고 한다.

IV. 大學生들의 校內生活

北韓 大學生들의 校內生活로서, 먼저 一般大學의 教科課程과 그것을 담당하고있는 大學敎員들의 敎授態度, 最近 北韓에서 顯著히 抬頭되고있는 外國語敎育의 強化 實態 및 海外語學研修 現況 把握, 그리고 軍隊生活를 聯想케 하는 大學生들의 日課와 그것의 延長線上에서 軍 內務生活과 같이 統制되어있는 大學의 寄宿舍生活 實態를 調査한다.

1. 教科課程과 敎員들의 敎授態度

大學에서 施行하고있는 教科課程은 大學의 專攻系列에 따라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政治思想敎育, 英語 및 軍事敎育은 專攻에 구애받음이 없이 모든 大學生들에게 優先적으로 履修케하여 共產主義的 인테리 養成에 注力하면서 外國語 習得을 통한 先進 科學·技術 導入에 안간힘을 쏟고있다.

授業時間이 年 35週, 週當 38 - 40 時間으로 4年制 大學인 경우 最小 總 5,320 時間에서, 最大 5,600 時間이 되며, 專攻科目을 除外한 主要 公 통과목의 내용과 시간은 思想敎育 科目으로 朝鮮勞動黨 鬪爭史 280 時間, 世界 共產黨 鬪爭史 160 時間, 마르크스·레닌主義 哲學 200 時間, 共產主義 政治·經濟學 150 時間으로 合計 790 時間을 履修하며, 최근 급격히 역점을 두고있는 英語가 280 時間, 專攻課目이 20 - 23 個 科目으로 3,150 時間에서 3,350 時間을 履修하게 되어있고, 軍事學은 校內 軍事敎育이 960 時間, 이 밖에 1,780 時間의 入營集體訓練을 別途로 받고

있다. 大學生 軍事訓練 實態에 관해서는 제 V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大學 教科課程에 따른 教員들의 教授態度가 北韓에서 점차 크게 문제시 되어가고 있다.

그 原因을 살펴보면 우선 校內·外의 各種 黨 會議를 비롯해서 社勞 靑, 職盟등 社會團體 會議, 教授評議會 및 教員의 職分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잡다한 政治的인 行事와 會議에 參加해야 한다.

또한 晝間學部 수업과 夜間 및 通信學部 수업까지도 맡고 있으며, 무작정 職場大學을 증설하여 극심한 教員不足 現狀을 빚어 工場大學 등에 現場 派遣, 出講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教員들이 연간 1千 時間에 해당하는 과중한 教授時間을 담당하고 있다. ²³⁾

教員들의 人事問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學位論文의 통과 여부조차 黨에 대한 忠誠度에 左右될 정도이다. 또한 教員들의 思想問題를 包摂하여 일상생활에 까지 黨의 보이지 않는 감시를 받고 있으므로 教員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을 뿐 아니라 教員들의 利己主義와 黨의 統制 사이에 內部的인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諸 原因으로 나타나는 최근의 경향은 大學 黨會議등 참가 기피 현상이 抬頭될 뿐 아니라 원고료 없는 原稿執筆 회피와 무성의한 기계적인 教授態度로 인하여 中央黨에서 공식적인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일부 교원들에 대해서는 黨과 學校로부터 축출시키는 黜黨, 黜學 소동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²⁴⁾

註 23) 김일성, 社會主義 教育學에 대하여, (日本東京: 구월서방, 1975) p. 226

24) 上掲書, pp. 226 - 229

2. 外國語教育 強化 實態

최근 北韓은 外國語教育을 대폭 強化해오고 있다. 그들의 教育指針인, ‘社會主義의 教育에 관한 提제’에서, “전 大學生은 1個 이상의 外國語에 完全 精通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大學生들에게 外國語에 精通케하여 現代 科學技術 發展 추세 把握과 現代 科學技術 및 知識을 習得하라”²⁵⁾고 교시한 바와 같이 外國語教育, 특히 英語教育을 계속 強化해왔다.

外國語教育 強化 추세를 보면, 분단 이후 ‘50年 韓國動亂까지는 영어, 노어, 한자 教育을 병행 해왔으나 동란 이후 소련의 影響力 增大와 反美思想 고취를 격렬하게 노골화하면서 英語教育을 폐지하고 노어 위주의 教育을 實施하였다.

‘66年 ‘푸에블로’ 피납사건 및 越南戰에 대한 美軍 參戰의 影響으로 영어교육의 必要性이 증대하여 ‘66년부터 다시 英語教育 復活과 學校에 따라서는 越南語教育을 ‘74년까지 노어 교육과 병행, 실시했다. 또한 中共의 影響力 減少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의 여파로 漢字教育 뿐만 아니라 公用文을 포함하여 漢字使用을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한글만을 사용해왔다.

‘75年 이후부터는 대학을 비롯하여 고등중학에서 영어 위주의 外國語教育으로 영어가 제 1 外國語로 격상되고 노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獨·佛·中·日語와 함께 제 2 外國語로 전락하였으며, 漢字教育을 復活시켜 일부 학교에서는 漢字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人爲적으로 없앤 漢字使用에 대해서도, 人名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에서 일부 漢字使用을 許

註25) 김일성, ‘全國 教育일군대회 (1978. 9.19)’ 연설

容하고 있으며, 越南語教育은 폐지시켰다.

北韓의 外國語教育 추세에서 본 바와 같이 社會의 자연적인 흐름과 需給原則에 따라 外國語教育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김 일성의 의도에 따라 政治權力으로 使用과 廢止를 수시로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英語教育 強化의 背景을 보면, 낙후된 北韓經濟에 대하여, 經濟計劃 수행에 필요한 外國語能力, 특히 영어능력 소지자가 대량으로 소요될 뿐 아니라 政治外交的으로는 美·中共 和解와 修交에 편승, 對美 接近의 必要性이 급증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外國語教育의 強化 實態를 보면, 먼저 外國語關係 特殊學校 設立을 들 수 있다.

'65年 12個 外國語 學科가 있는 平壤外國語大學, 淸津外國語大學 對外經濟事業 促進을 위한 平壤 貿易大學, 外交官 양성을 위한 國際關係大學, 外國語 교원양성을 위한 外國語 師範大學을 각기 設立하였다. 또한 北韓은 早期 外國語 特技教育을 장려하기 위해, 인민 학교 卒業豫定者중에 外國語에 소질있는 學生을 엄격히 선발해서 입학시키는 7年制 外國語學校를 設立하였다.

'75年以後 一般學校의 外國語教育은 영어가 高等中學 및 大學의 必須 제 1 外國語로서, 週당 3-4 시간, 獨·佛·露·中·日語는 選擇 제 2 外國語로서 週당 약 1-2 시간 履修시키고 있다.

또한 有線放送을 통하여 1일 2회, 아침·저녁으로 英語講座를 개설하였으며, 親北 左傾 非同盟國家중 英語常用國을 중심으로 海外語 學研修生 派遣을 增加시키고 있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年 8月 現在 파악된 北韓의 海

<表-2>

北韓의 海外 語學研修現況

(' 81. 8. 현재 파악내용)

外國語	派遣內容
英語	가이아나, 시에라레온, 파키스탄, 이락등 약 120名
佛語	프랑스, 알제리아 (불·아랍어공용) 등 약 50名
아랍語	이집트, 시리아, 알제리아등 약 45名
서반아語	큐바 약 15名
獨語	동독
其他語	이란, 스웨덴, 노웨이, 핀란드등 각국에 어학연수생 파견

外 語學研修 現況을 보면, 親北 左傾 非同盟國家이면서 英聯邦國으로 英語常用國인 가이아나에 100여명과 시에라레온 5명 정도, 그리고 英國으로부터 獨立하여 土着語와 함께 英語를 共用語로 쓰는 파키스탄, 같은 영국으로부터 獨立된 國家로서 영어가 널리 쓰이는 이락에 英語 研修生 20여명이 派遣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어와 아랍어가 共用語인 알제리아와 프랑스에 불어 연수생 약 50명, 이집트, 시리아 및 알제리아에 아랍어 연수생 약 45명, 큐바에 서반아어 연수생 약 15명, 東獨에 獨逸語 연수생 약간명 기타 이란, 스웨덴, 노웨이, 핀란드 등 各國에 주재국 어학 연수생이 派遣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自立更生政策에 의하여 극단적인 폐쇄성과 落後性으로부터 脫避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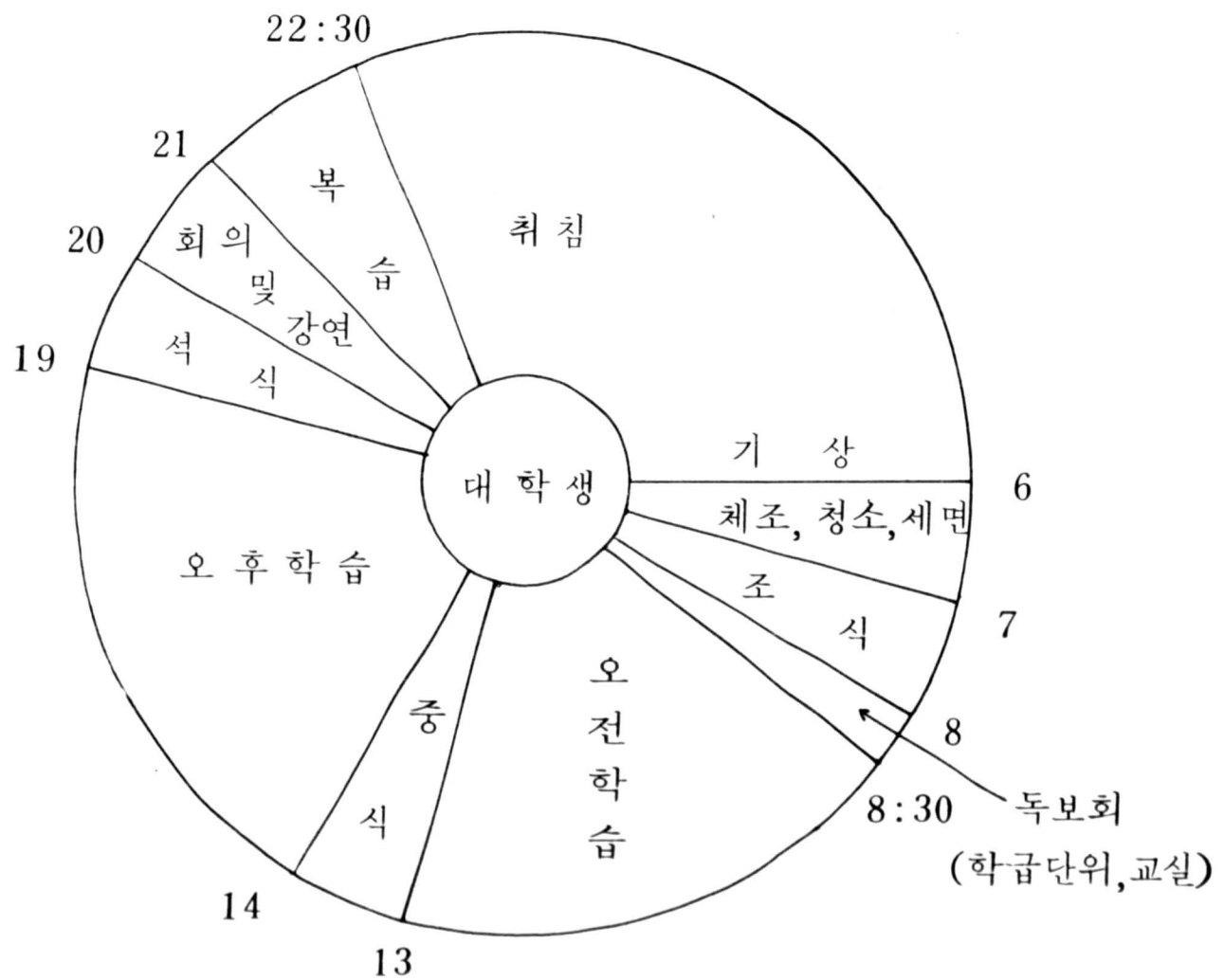
하여 이같은 海外 語學研修生 派遣은 앞으로 더욱 增加될 것으로 보인다.

3. 大學生 日課 및 寄宿舍生活

<圖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大學生들의 日課는 軍隊生活처럼 엄격히 통제된 생활로서, 마치 시계와 같이 규칙적이므로 개인생활은 가질 시간도 없거니와 모든 행동원칙이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하여 團體生活를 갖도록 되어있다.

<圖表 4>

北韓 大學生의 日課



모든 대학생들은 圖表와 같은 日課表에 따라 생활하며, 특히 아침 8시부터는 강의실에 모여 학급 단위로 30분 동안 讀報會를 갖는다. 北韓의 新聞·雜誌, 放送 등 모든 言論·出版物이 정치사상교육의 도구로서, 그 내용이 온통 金日成과 그의 세습 후계자 金正日 찬양이나 革命性, 階級性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도무지 읽지 않고, 그나마 각자에게 배부되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讀報會를 통하여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 주로 신문을 읽어주지만, 워낙 재미가 없으므로 듣는 척만 한다고 한다.

낮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은 하루 일과에 대한 生活總和를 통하여 自我批判 등 公開的인 反省의 時間을 갖거나 思想講演을 듣는다고 하며,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復習時間이고 시간이 있으면 豫習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면 대개 극도로 지치게 되고, 10시 반에는 일제히 취침시간에 들어간다.

모든 大學이 이 日課表와 꼭 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生活을 하고 있다. 이쯤되면 자유분방해야 할 大學生活이 마치 士兵들의 軍隊生活을 방불케 한다.

北韓의 大學生들은 90% 이상이 寄宿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日課表에 따라 生活全體가 拘束되고 있다. 10% 範圍內에서 가정 형편상 또는 신체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통학할 수 있다는 規定을 이용하여 黨·機關幹部子弟들은 교묘히 기숙사의 통제된 집단생활을 면제받고 있다.

寄宿舍의 編成을 보면, 寄宿舍委員會가 생활 전반에 대하여 監督과 檢閱을 실시하며, 委員長 1名, 副委員長 1名, 體育擔當 2名, 規律擔當 4-5

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寄宿舍 各 層에는 層長 1인이 있고 各 號室에는 黨的 成分이 좋은 자와 나쁜자, 성적이 좋은자와 나쁜자, 고학년과 저학년 등 고르게 배치하여 4—6名씩, 그야말로 수용된 狀態이며, 各 號室長이 사소한 私生活까지 감시하도록 되어있다.

北韓 大學生들은 이러한 組織生活에 묶여서 사소한 개별행동도, 이른바 ‘自由主義的 表現’이라는 명목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있다. 예를 들어, 寄宿舍生이 일요일이나 休日을 이용하여, 寄宿舍委員會의 許可 없이 집에 다녀왔다면, 비록 당일로 다녀왔더라도 강하게 비판을 받게된다. ²⁶⁾

大學生들의 勉學을 돕기 위한 寄宿舍制度가 북한땅에서는 이와 같이 학생들의 私生活를 封鎖하여 共產主義 人間改造의 수단으로 유감없이 活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말하자면, 寄宿舍를 인민군의 내무생활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註 26)北韓總鑑, (서울, 共產圈問題研究所, 1968), p. 600

V. 大學生 軍事訓練 實態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무력수단만이 赤化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62년 이후, 소위 '4대 군사로선'을 設定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의 표현으로 金日成은 '70년 11월 제5차 黨大會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들의 軍事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각급 학교 모든 남·여 학생들에게 軍事教育을 義務化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에게 正規軍 水準의 軍事教育을 실시해오고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軍事目標에 입각한 대학생 군사훈련 실태에 대하여, 먼저 大學生 軍事訓練 沿革, 다음으로 大學生 軍事訓練 內容과 大學軍事教育 指揮體系, 大學 軍事組織編成, 軍種및 兵科 그리고 南·北韓 大學軍事教育을 比較한다.

1. 大學生 軍事訓練 沿革

북한의 학생 군사교육은 '4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과 동시에 시작되어 6.25 남침 준비와 더불어 군사교육을 계속 강화해왔다. 休戰 이후 학생들의 군사훈련 기피 경향이 나타나자 '56년부터는 군사교육과목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留級을 시키거나 졸업을 못하도록 새 규정을 적용시켰다. ²⁷⁾

그후 '58년 中共軍이 철수함에 따라 兵力과 火力의 질적·양적 증

註 27) 서울신문, 1981년 7월 16일자 9면

대가 요구 되어 '59년 1월 14일에는 로농적위대를 창설하였으며, '59년까지 공장, 기업소, 농장등에만 조직되었던 로농적위대조직을 같은 해 8월 1일 북한의 전 대학에 확대, 모든 대학생을 로농적위대에 편성함과 동시에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분야에 상응하는 軍種 및 兵科를 구분, 대학 로농적위대를 軍事部隊化하여 해당 軍種의 正規軍 兵科訓練을 실시하였다.²⁸⁾

'62년 12월 黨 中央委員會 4期 5次 全員會議에서 “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原則’을 결의하였으며²⁹⁾, 이 원칙에 따라 ‘全 人民의 武裝化’, ‘全 國土의 要塞化’, ‘全 軍의 現代化’, ‘全 軍의 幹部化’라는 黨의 革命的 4대 軍事路線의 기본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63년부터 실천에 옮겨졌다.

'62년부터 로농적위대에서 선발된 精銳要員들로 각급 공장 및 기업소에 敎導隊를 분리, 조직하였고, '70년대 이후 4대 군사로선이 점차 정립되어가자 '74년에는 대학생 군사조직을 보다 精銳要員化하기 위하여 대학 로농적위대를 대학생 교도대로 개편,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註 28) 北韓 民族保衛相 命令 127 號, 教育文化相 命令 25 號의 共同命令

29) 조선중앙년감 (1963년판), PP. 157 - 162

2. 軍事訓練 內容과 組織體系

학생 군사교육은 國防力 強化 政策³⁰⁾에 따라 '62년 이후 다른 학과목 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制度化하여, 북한 학생들은 軍事學 點數 따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간의 정규 훈련 및 불시 훈련이 있으며, 4년간 평균 960시간의 교내 대학생 교도대 훈련은 火器學, 原子學 등 軍事學 理論 및 實技와 政治學習 등 이론 면에 치중하고, 入營訓練은 各 道에 설치된 常設 大學敎導隊 訓練所에 入所, 年 1회 2개월씩 4년간 1,780시간 現役 軍官 지도하에 集體訓練을 받게 된다. 入營集團訓練의 내용을 보면, 김 일성과 공산주의에 관한 政治學習, 공격·방어·유격 등 戰術訓練, AK소총, 기관총, 박격포, 고사포 등 火器學 理論 및 射擊訓練, 기타 化生放, 讀圖法 등 實戰訓練을 강행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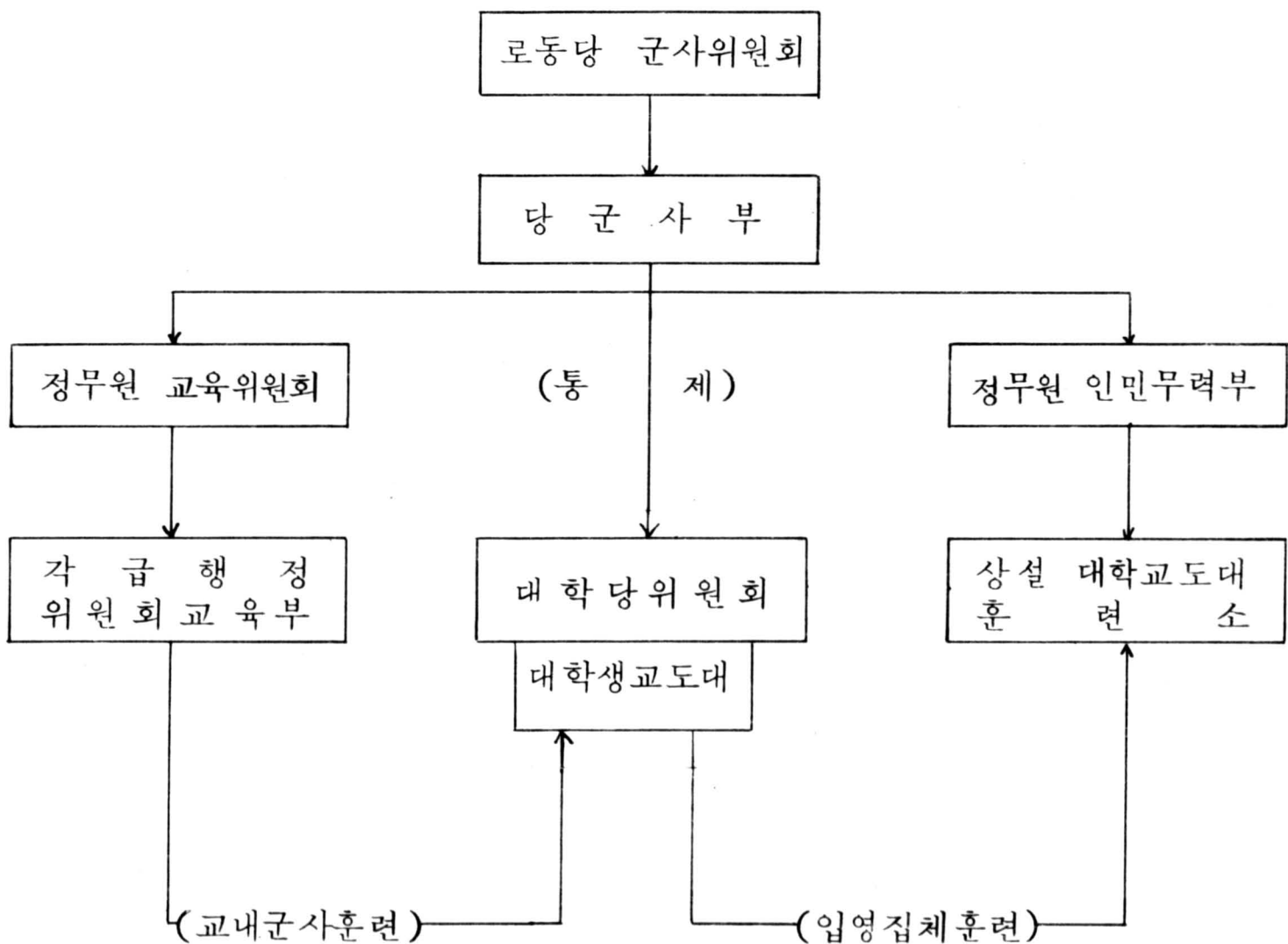
校內 軍事訓練의 編成은 대학의 당 조직에 준하여, 대학생 교도대를 대학 당위원회 편제에 의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영집체훈련의 편성은 대학생들을 정규 軍事部隊化하여 현역 大佐가 訓練所長, 政治部 旅團長이 현역 上佐, 軍事部 旅團長이 현역 上佐, 대대장이 현역 中佐 등 現役 軍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副小隊長, 特務長, 分隊長은 학생 간부로 구성, 정규군 편제를 이루고 있다.

교내 훈련을 포함하여 평상시에는 기숙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집단생활을 하며, 입영집체훈련 시에는 북한 인민군 내무생활의 규율대로 新兵訓練所와 유사한 생활을 한다.

註 30) 上掲書, PP. 157 - 162

<圖表 5>에서와 같이, 군사 부문의 最高 黨 政策議決機構로서 김 일성이기 위원장으로 있는 로동당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 산하에, 북한의 戰爭指導機構인 黨 軍事部 관장하에 고등중학교 및 대학의 군사조직체인 ‘붉은 청년군위대’와 ‘대학생 교도대’가 조직되어있다. 따라서

<圖表 5> 北韓의 大學 軍事教育 指揮體系



中央黨 軍事部를 통해 道黨 軍事部, 市·郡黨 軍事部를 경유하여 각 대학 당위원회에 대학 교도대가 편성, 조직되어있으며 이러한 黨 組織體系

에 의하여 학생 군사교육에 관한 지휘·감독·통제를 행사한다.

실제 군사훈련은 당 군사부에서 작성된 學生 軍事教育綱領에 입각, 政務院 教育委員會와 人民武力部가 상호협조,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직할시 및 시·군 행정위원회 교육부를 통하여 각급 학교의 國防體育, 政治學習, 制式訓練과 軍事學 理論 및 實技 등 교내 군사훈련을 관장하며, 人民武力部 戰鬥訓練局에서는 상설 대학교도대 훈련소에 대학생들을 입영시켜 집체훈련을 실시한다.

소위 성분이 좋고 사상이 높은 핵심 분자로 구성되어 언제라도 실천에 투입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추고 있는 대학생 교도대의 조직 편성은 일반 교도대의 군사적 편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대학을 연대, 학부를 대대, 학부별 각 학년을 중대, 학급을 소대로 편성하여 대학 교도대의 지휘, 운영은 대학 당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

연대장에는 大學 黨委員長, 대대장에는 學部 黨委員長, 중대장에는 學部別 各 學年의 黨細胞委員長, 소대장에는 各 學級의 黨分組長으로 임명하여 軍事訓練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마저 黨的 統制下에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特性和 專功分野에 상응하는 軍種과 兵科로 구분, 편성하여 해당 軍種 및 兵科教育을 이수케 하여 兵科將校 배출이 가능토록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김일성대학, 각 사범계대학과 농대는 步兵, 金策工大, 평양 기계대학 등은 砲兵, 평양 건설대, 威興 水理大, 청진 광산대학 등은 工兵, 金策工大 電氣工學部, 평양 체신대 등은 通信, 함흥

화학공업대학등은 化學, 各 醫學大學은 軍醫, 江界 獸醫畜產大學등은 獸醫, 元山 水產大學은 海軍 등으로 구분하여 정규군 수준의 兵科訓練을 실시하고 있다.³¹⁾

3. 南·北韓 大學 軍事教育 比較

남·북한 대학 군사교육을 비교해 보면, 우선 군사교육 목적이 북한은 군사훈련 및 국방체육을 통하여 김일성 유일사상에 입각한 革命精神 함양과 ‘全人民의 武裝化政策’에 의거, 全 大學生의 常備 戰鬥兵化 및 兵科에 따른 初級 指揮官의 能力培養등이 그들의 주된 군사교육의 목적이고, 한국의 경우, 군사교육을 통한 自主國防思想 涵養 및 健全한 精神과 體力研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만 自願에 의하여, 일부 대학생들에게 初級將校 養成을 위한 R·O·T·C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指揮體系를 보면, 북한의 대학생 교도대는 準 軍事部隊로 조직되어 戰爭指導 및 軍事問題의 最高 執行機構인 로동당 軍事部의 직접 지휘, 통제 하에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指揮 및 教育의 一元化와 動員의 效率化를 기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中央學徒護國團長인 文教部 長官의 指揮를 받는 각 대학 學徒護國團이 非軍事組織體로 되어있고, 실제 군사교육은 總·學長의 책임하에, 國防部에서 파견한 學生軍事教育團은 교육만 專擔하므로 組織과 教育이 분리되어 있다.

兵力面에서 北韓의 大學教導隊가 약 17만명이며, 한국은 북한 보다 대

註31) 金桂郁, 北韓教育의 分析(서울:大提閣, 1980), P. 163

학생이 월등히 많음에 따라서 學徒護國團이 약 35만명에 이르고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교내 훈련장비로서 個人火器 AK소총이 100% 지급되고, 입영 훈련장비로 AK소총 뿐만아니라 박격포, 고사포등 共用火器가 지급되는데 비해 한국은 교내 훈련시 木銃과 일부 個人火器로서 MI소총을 지급하고 있으며, 입영훈련시에는 個人火器 M 16소총을 지급한다.

교육 시간면에서, 북한은 교내 교육이 4년간 960시간, 입영 집체 훈련이 년 2개월씩 4년간 1,780시간, 합해서 무려 2,740시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한국의 경우 2학년까지만 실시하는 교내 군사교육 128시간과 1학년 신입생만 해당되는 입영 집체훈련이 모두 6일간 40시간으로 총 168시간의 군사교육을 이수시키고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북한은 김 일성 유일사상, 혁명투쟁사등 정치학습이 40%, 유격·방어·공격등 전술훈련이 30%, AK소총, 기관총, 박격포, 고사포등 공용화기를 포함하여 화기학이 20%, 科學戰및 兵科別 特技訓練 등이 10%로서 政治學習과 戰術訓練에 치중하는데 비해, 한국은 一般軍事學이 32%, 戰術學이 26%, 火器學이 18%, 化生放, 評價및 査閱등이 24%를 차지하여, 군인으로서의 一般的인 資質向上에 力點을 두고있다.

北韓 女大生の 군사교육은 男學生과 동일한 教導隊訓練을 이수하고 兵科訓練만은 별도로 看護學, 無電學, 射擊, 原子戰 對備教育등을 실시하고있는 반면에, 한국은 여대생에 대한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고있다.

군사교육에 따른 兵役上의 혜택을 보면, 북한에서는 재학생의 70%이상 入學前에 군대를 除隊한 학생들이고 기타 학생들도 職場生活과 在

< 表 3 >

南 · 北 韓 大 學 軍 事 教 育 比 較

구 분	북 한	한 국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체육 및 군사훈련을 통한 혁명정신 배양 ○ 전학생의 상비 전투병화 및 초급 지휘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군사교육을 통한 자주국방사상 함양 ○ 군사훈련을 통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연마
지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동당 군사부의 당적 지휘 통제 하에 — 정무원 교육위원회 및 인민무력부 공동 훈련계획 수립,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의 행정적 지휘 · 감독 하에 — 국방부의 학생군사 교육단은 교육만 실시
병력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도대 : 17만 ○ 실전용 개인화기 및 공용 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도 호국단 : 35만 ○ 개인화기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교육 : 960 시간 (4년간) ○ 입영집체훈련 : 1,780 시간 (4년간) 계 : 2,740 시간 (4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교육 : 128 시간 (2년간) ○ 입영집체훈련 : 총 40 시간 (1학년생 6일간) 계 : 168 시간 (2년간)

구 분	북 한	한 국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학습 (40%) ○ 전술 훈련 (30%) ○ 공용 화기 (20%) ○ 병과별 특기 훈련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군사학 (32%) ○ 전 술 학 (26%) ○ 화 기 학 (18%) ○ 화생방, 평가 및 사열 등 (24%)
여 학생 군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학생과 동일한 교도대 훈련 실시, 단 입영 집체 훈련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에 대한 군사 훈련은 없음
병역상의 혜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에 현역 복무에 상응한 군사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군사학 졸업 시험 합격 자: 예비역 군관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 훈련 시간에 상응하는 현역 복무 단축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 집체 훈련 치중 (한국의 40배 이상) ○ 초급 지휘관 수준의 정규군 군사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군사교육 치중 (북한의 1/16) ○ 사병 수준의 일반적인 군사교육 실시

學中에 現役服務에 상응한 군사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綜合 軍事學 卒業試驗에 합격하면, 人民軍 豫備軍官 자격을 부여하여 有事時에 대비, 豫備戰力化하고, 落第者는 유급과 동시에 군사훈련소에 再入所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R·O·T·C 지원 학생들만 現役 少尉로 任官하고 일반 학생들은 재학중의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現역복무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表 3>의 南·北韓 學生 軍事教育比較表와 같이, 남·북한 각기 군사교육의 特徵을 보면, 북한은 교내교육보다는 입영집체훈련에 치중하여 무려 한국의 40배 이상이 된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初級 指揮官 水準의 정규군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有事時, 現役軍官에 배치, 그들의 軍事目標인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豫備戰力化에 역점을 두고있는데 비해, 한국은 入營 集체 訓練보다는 校內군사교육에 치중하고있으며, 그나마 訓練 時間이 북한의 1/16 밖에 안된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士兵 水準의 一般的인 軍事教育 水準을 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學徒護國團은 본래 非軍事目的과 非軍事組織으로 有事時의 動員과는 別個로서 大學教育의 一環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있다.

學中에 現役服務에 상응한 군사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綜合 軍事學 卒業試驗에 합격하면, 人民軍 豫備軍官 자격을 부여하여 有事時에 대비, 豫備戰力化하고, 落第者는 유급과 동시에 군사훈련소에 再入所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R·O·T·C 지원 학생들만 現役 少尉로 任官하고 일반 학생들은 재학중의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현역복무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表 3>의 南·北韓 學生 軍事教育比較表와 같이, 南·북한 각기 군사교육의 特徵을 보면, 북한은 교내교육보다는 입영집체훈련에 치중하여 무려 한국의 40배 이상이 된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初級 指揮官 水準의 정규군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有事時, 現役軍官에 배치, 그들의 軍事目標인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豫備戰力化에 역점을 두고있는데 비해, 한국은 입영 集체훈련보다는 교내군사교육에 치중하고있으며, 그나마 훈련 시간이 북한의 1/16밖에 안된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士兵 水準의 一般的인 軍事教育 水準을 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學徒護國團은 본래 非軍事目的과 非軍事組織으로 有事時의 動員과는 別個로서 大學教育의 一環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있다.

Ⅵ. 大學生들의 團體生活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은 集團主義原則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生産勞動과 思想鍛鍊을 위해 黨 統制下에 團體生活을 制度的으로 義務化시키고있는 바, 먼저 대학내의 黨 指導體系 및 社會動員組織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대학생의 課外活動을 중심으로 학생 勞力動員과 각종 ‘사회주의’ 勞力競爭運動, 그 實例로서 3大革命小組運動, 만폐이지 책임기 운동, ‘천리마 학급’ 運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 大學의 黨 指導體系 및 社會動員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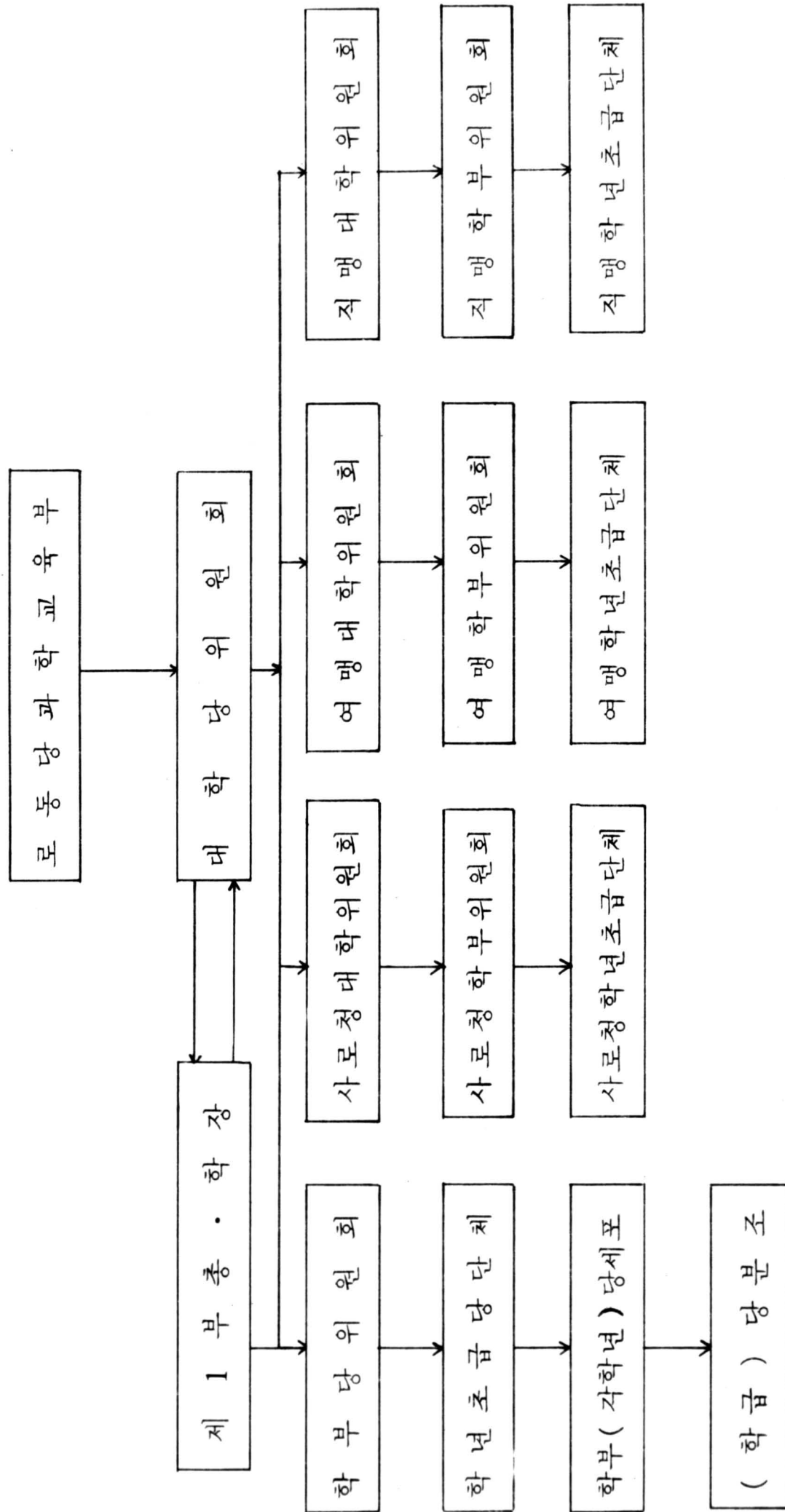
〈圖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학 黨 指導體系로서 로동당이 북한의 教育 全般을 관장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로서 黨 中央委員會에 科學·教育部를, 도·직할시에는 道黨 學校教育部를 설치하고 있다. 敎員大學등 地方的 규모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市·郡黨 學校教育部의 지휘·통제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과 같이 규모가 큰 國策大學의 黨委員會는 市·郡黨 委員會와 같은 권한을 갖고 中央黨의 직접 또는 道黨의 지휘·감독하에 있다.³²⁾

원칙적으로 당의 교육지도기관들은 학교교육에서 제기되는 政治的 問題들만을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당적 지도라는 구실아래 업무계획에서부터 대학 전반에 관한 지시·감독등 월권을 행사한다.

註 32) 김 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일본동경: 구월서방, 1975) P.192

<圖表 6>

大學의 黨 指導體系 및 社會動員組織



'63년 4월 18일 로동당 中央委員會에서 김 일성은 '大學의 教育 教養事業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학 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대학 당위원회는 대학의 최고 지도기관입니다. 대학 당위원회는 대학의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지도하여야하며 대학의 본신 임무인 교육교양사업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³³⁾라고 밝힌 대로 대학 당위원회는 사실상 대학의 직접적인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그 아래 學部 黨委員會, 學年 初級 黨團體, 學部別 各 學年の 黨細胞, 學級에 黨分組가 組織되어 마치 거미줄 같이 縱橫으로 얽혀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이밖에 社會動員組織으로서,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약칭 '사로청'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 당위원회의 산하단체로서 사로청 大學委員會가 組織되어있고, 하부조직으로서 사로청 학부위원회, 사로청 학년 초급단체가 구성되어있다. 대학에는 專任 社勞靑委員長이 中央社勞靑에서 파견되며, 북한 대학생들의 방과후 행사는 일체 이 단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7세 미만의 靑年敎員들도 社勞靑에 가입해야하며, 黨員일 경우에는 社勞靑 生活를 겸하기는 하지만 黨生活에 중심을 두고있다.³⁴⁾

이외에 사회동원조직으로서 대학 당위원회 산하에 '조선 민주여성동맹' 대학위원회에 女性敎員 全員이 가입되어 있고 그 하부조직에 여학생들이 망라되어있다. 그리고 '조선 직업동맹' 대학위원회에는 全 敎職

註33) 上揭書,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p.180-181

34) 北韓總鑑, (서울, 共產圈問題研究所, 1968), p.598

員이 의무적으로 組織員으로 편성되어 물샐 틈 없는 社會動員 組織網 속에 모든 구성원이 철저히 망라되어있는 실정이다.

2. 大學生의 課外活動

북한 대학생들에 대한 課外活動의 名分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받들어” 課外活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³⁵⁾

북한 대학생들의 日課를 대별하면, 교원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教授事業이 있고, 또 하나는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여 勞動黨 정책을 실현키 위한, 그들의 표현을 빌면, 金日成 수령의 교시를 구현키 위한 社會團體活動인 課外活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한국에서와 같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각자의 취향에 맞는 個人的인 生活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月別, 週別, 日別로 세밀하게 작성된 事業計劃書에 의하여, 社勞靑 幹部들의 지도아래 단체생활에 參加해야 한다. 예를 들면, 社會義務勞動制 실시에 따라 勞力動員 參加, 金日成 家系 偶像化를 위하여 대부분 날조된, 소위 革命戰跡地 踏查, 3大 革命小組運動등을 비롯한 각종 競爭運動 參加, 그리고 일종의 軍事訓練인 行軍, 登山 및 “戰爭競技”인 國防體育등 課外活動이 교내 수업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실시된다.

학생들은 학업성적도 성적이지만 이와 같은 단체생활, 즉 사회정치생활

註 35) 로동신문, 1981년 2월 18일자 4면

의 평점이 좋아야 보다 나은 社會進出을 위하여 각종 혜택과 추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추적인 課外活動으로서, 大學生들의 週間行事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짜여져있다.

월요일에는 “社會奉仕의 날”로서 노력동원에 가담하게 된다. 북한의 의무노동에 따른 농번기나 대공사 때는 수업을 전폐하고 일터에 동원되며, 기타 勞力支援이나 社會奉仕의 名目으로 방과후 일정시간 참여해야 한다.

화요일에는 “會議의 날”로서 교원, 학생할 것 없이 黨員인 경우, 대학 당위원회의 各級 黨會議, 女學生인 경우, ‘조선 민주여성 동맹’ 대학 위원회의 各級 會議, 그리고 각종 課外活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대학위원회의 各級 會議, 때로는 정치사상강연회 참가 및 기타 사회정치행사의 박수부대로 참석하기도 한다.

수요일에는 소위 ‘文化의 날’로서 김 일성 찬양과 계급성 및 革命을 고취, 자극하는 각종 노래, 문학, 영화등을 널리 선전, 보급하는 날이다.

목요일에는 실내외 대청소, 환경 및 신체에 대한 衛生檢閱을 하는 ‘衛生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技術研磨의 날’로서 공장, 농장, 어장, 목장, 광산등에 가서 見學과 實習의 名目으로 노동을 겸하게 된다.

토요일을 ‘體育의 날’로 정하여, 戰爭競技와 같은 소위 국방체육경기를 격렬하게 벌이며, 대개 이날 교내 군사훈련도 갖는다. 일요일에는

오전에는 자습을 하기로 되어있으며, 오후에는 대체로 자유시간이다.³⁶⁾

3. 學生 勞力動員

한국은 노동에 임하는 基本態度가 自願的인데 비하여, 북한은 義務的·強制的인 것이다. 따라서 勞動過程의 創意性에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며, 勞動資源 活用度에 있어서도 自願勞動 原則에 의거하고 있는 한국보다 勞動資源이 부족하면서도 노동 強度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가정 주부등 대상외의 노력동원으로 보충하고있는 실정이다. 그에 대한 制度的 裝置로서 義務勞動制 실시에 따라 북한의 모든 사람은 연간 최소 20일 이상 義務勞動者로 동원되며, 심지어 자동차 및 牛馬車도 연간 10~15일 이상 동원되도록 되어있으므로 代價를 받을 수 없는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된다.³⁷⁾

북한의 이러한 義務勞動原則에 따라 학생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 중학교 이상의 전체 학교들에서는 의무 노동제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³⁸⁾

대학에서는 人文·社會系가 연간 12주, 技術系가 14주간의 사회 노동에 참가해야 하는데, 그 內譯을 보면, 社勞靑 大學委員會 주관하에 工業勞動 4주간, 建設勞動 4주간, 農業勞動 4주간으로 연간 12~14주간은 전연 수업을 받지않고 노동만 하게되는 것이다. 이 밖에 災害復

註36) 前掲書, 北韓總鑑, p.600

37) 內閣決定(1950.3.25), '義務努力動員에 관한 規定'

38) 內閣決定(1959.3.2), '學生 社会義務勞動에 관한 規定'

舊時나 대학 자체에서, 학교시설 확장공사등의 이유로 수시로 방과 후 3~4 시간씩 의무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리하여 북한의 모든 중요한 시설중에서 학생들의 피와 땀이 숨어있지 아니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어린 인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실제로는 少年團 등 각종 단체의 조직을 통하여 연간 2~4 주간의 모내기, 논에 물뿌기, 땀감 장만하기, 토끼 기르기 등 노동에 동원되는 실정이다.

북한 공산당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가혹한 강제노동을 시키는 대가로 '59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료 징수를 폐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의무노동에 참가한 시간을 노동의 最低賃金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업료의 3배 이상이 된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이 공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김 일성 아버이 수령이 공부를 시켜주니까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을 통하여 階級思想 고취와 人間改造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자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노리는 것이 바로 '학생 사회의무노동제'의 숨은 목적인 것이다.

4. 各種 '사회주의' 努力競爭運動

북한에서는 노동력의 '黨的 管理'에 중점을 두고, 소위 '사회주의

註 39) 前掲書, 北韓總鑑, pp.601 - 602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당의 감시에 의한 集團的 勞動, 勞動의 集團化를 강제 하고있다. 북한에서는 增産計劃은 물론 節約目標까지 달성키 위하여, 個人, 作業分組, 作業班,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단위로 심지어 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령과 당이 준 과업을 완수해내지 못하고서는 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라는 구호아래 가혹한 집단적 노력경쟁운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40)

북한에서는 노동보수와는 상관 없이, '사회주의 건설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천리마'처럼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며 個人別, 作業分組別, 作業班別, 各 職場別 등 多元的인 경쟁조직으로 집단적 生産性 提高와 節約目標를 독촉받고있다.

이러한 운동은 生産部門뿐 아니라 教育·文化機關등 非生産部門에 까지도 각종 목표달성을 위해, 소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黨의 總路線'이라고 그 意義를 조작하고 있다. 또한 노력경쟁운동을 가리켜 共產主義 人間改造의 가장 중요한 政治思想敎化의 手段이라고 규정하고 勞動成果를 基準으로 각 個人 또는 각 單位들의 人間改造 水準과 金日成에 대한 忠誠의 尺度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41)

'사회주의 경쟁'의 典型的인 形態로서 1957년부터 시작한 '천리마'운동, '74년의 '속도전', '75년의 '3대혁명 불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등이며, '7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에 전투적인 각양각색의 '돌격대' 조직을 만들어 노동 강화를 극대화시키고

註 40)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会文化 現況比較, 1980, p.73

41) 上掲書, p.74

있다.

이와 같은 당의 방침에 따라 대학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운동으로 '3대혁명소조운동', '1만페이지 책임기운동', '천리마학급운동' 등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동계급사상 고취와 인간개조에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3대혁명소조운동으로서 黨 中央으로 지칭되는 金正日의 親衛隊, 近衛隊로서 黨 政策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오래된 간부들의 保守主義, 要領主義, 機關本位主義, 官僚主義등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에 표면적인 목적을 두고있으나⁴²⁾, 실제로는 金正日의 後繼體制 구축과 연관된 體制改編과 世代交替에 목적을 두고있다.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憲法을 제정, 3대혁명을 규정한⁴³⁾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73년 2월 김 일성의 방침에 의거, 黨 政治委員會 결정에 따라 小組를 組織, 북한 전역의 공장, 기업소 및 농장에 파견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金正日의 權力世襲과 결부되면서 革命的 群衆路線으로 발전, 강화되어왔다.

金正日의 직접 지휘하에 核心黨員, 國家, 經濟機關등의 청년 인테리 특히 대학생과 대학교원, 기술자등으로 구성, 지도 대상에 따라 單位 小組는 20~50명에 이르기까지 조직되어, 현재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註42) 근로자, (평양:근로자사, 1977.11) p.30

43) 사회주의 憲法 제 11, 36 조, 사회주의로동법 제 9 조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을 3대 혁명소조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3대 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⁴⁴⁾ 고 지적한대로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 교육과 낙후된 경제건설을 위하여, 현재 북한 대학에서 중추적인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으로 등장하고있다.

小組運動의 후유증으로는, 선택된 黨內 革命小組와 기존 黨組織과의 갈등, 사상과 기술지도의 구실로 金正日을 등에 업고 갖은 간섭과 비리를 자행하는 小組와 行政官僚 및 各 機關要員과의 갈등, 小組員과 非 小組員간의 異質感에 따른 청년들 내부의 갈등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심화되어가고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책, 신문, 잡지, 심지어 예술적이어야 할 각종 文藝作品조차도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金日成 崇拜를 비롯하여 政治思想 教育을 주입시키고 있음은 어떤 책을 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염증이 만연되어있는 북한에서, 특히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대해 크게 社會問題視하고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는 ‘만페이지 책읽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의 意義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黨 中央이 제시한

註 44) 김 일성저작선집, 제 7권 (1978), pp.377 - 378

만페이지 책임기운동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기 위한 충성의 책임기운동으로 되는 것은 이 운동의 본질적 요구로부터 설명된다.”⁴⁵⁾고 하였듯이 거의 다 제3자에 의하여 씌어진, 소위 김일성 저작과 그의 교시 학습을 통한 金日成 偶像化, 대부분 날조된 혁명, 노동, 당 역사 학습을 통한 계급의식 및 혁명정신 함양, 사회주의 문예작품 독서를 통한 사회주의 우월성 고취가 이 운동의 목적이 되고 있다.

당 방침에 의거, 各 學部 社勞靑委員會는 이 운동에 대한 統制와 檢閲을 강화하고있다. 먼저 한해에 각자 1만페이지 이상의 책임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月 目標와 週 책임기 目標를 세우고, 讀書計劃과 成果에 대한 日誌를 記錄, 그에 따른 檢査를 받게된다. 또한 初級團體別, 個人別 競爭圖表를 作成케하여 競爭意識을 부채질 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그리고 學部 社勞靑委員會는 매주 금요일 또는 특정 요일에 ‘만페이지 책임기운동 총화의 날’로 정하고 책임기 경험 발표회 통하여 본보기를 만들고 그 경험을 一般化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북한에서는 읽기 싫은 책을 읽게하기 위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金日成에 대한 忠成의 尺度로 간주하면서까지 人間改造를 위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있다.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56년 12월 黨 中央

註 45) 대학생 3월호, (평양:금성 청년출판사, 1981) p.11, 27

委員會 全원회의 이후, 노동 강화를 통한 생산증대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敎養, 改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北韓의 각 분야에서 全 人民的 努力競爭運動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운동의 典型的인 形態인 ‘천리마작업반 경쟁운동’을 학교교육에 적용, ‘천리마 학급운동’, 더 크게는 ‘천리마학교 칭호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이 운동의 평가기준은 학업성적에 있어서 단위 학급의 학생 전부가 전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학급, 사상교양과목에서 共產黨史등 정치사상교육과목 성적이 全校에서 탁월한 학급, 社會 勞動性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 책임량의 300~500% 초과 수행한 학급, 군사훈련 성적 면에서는 휴식시간을 이용, 보충훈련을 실시한 학급이 천리마학급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評價結果는 참가 學生別로 全員이 評定書가 작성되어, 졸업후에도 계속 社會團體生活 評點面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표창장, 휘장, 수첩, ‘천리마’ 기 등이 수여된다.

이와같이 북한에서는 靑少年들의 心理를 교묘히 이용, 集團 對 集團間의 경쟁심을 유발, 고무, 채찍질하여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 달성과 인간개조사업을 조직적으로 벌인다.

VII. 卒業後の 社會進出

以上에서 본 大學生活을 통하여 배출되는 北韓 大學生들이 卒業後 어떻게 社會進出을 하는지, 먼저 大學卒業者에 대한 資格賦與와 職場配置에 관한 實態, 다음으로 최근 현저히 대두되고있는 海外留學生 派遣에 있어서, 그 목적, 유학추세 그리고 대상 國家및 分野에 대한 實態를 把握, 分析한다.

1. 大學卒業者에 대한 資格賦與

北韓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社會로 進出하는 分野가 教育界로서, 급격히 늘어나는 教員에 대한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教員大學과 師範大學을 新設하였다.⁴⁶⁾ 教員養成體系를 보면, 第1教員大學 卒業者에게는 人民학교 教員, 第2教員大學 卒業者에게는 幼稚園 教養員, 第1師範大學은 高等中學校 高等班(5-6學年), 第2師範大學은 高等中學校 中等班(1-4學年) 教員資格을 賦與한다.

醫學大學은 醫師資格, 農·水産系를 포함한 理工系 大學은 각기 專攻에 상응한 技師資格을 부여하고있으며, 기타 人文·社會·外國語및 藝·體能系 大學에서는 공식적으로 각기 專門家資格을 부여하고, 各 系列 共히 大學 卒業者에게 學士學位는 수여치 않는다.

大學卒業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學者및 研究員 進出 分野를 보

註46) 朝鮮資料, 1981.2 (通卷237號)東京:朝鮮問題研究所. P.107

면, 北韓에서는 大學院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과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박사원을 각각 설치하고있는데, 연구원은 학사학위과정 3-4년, 박사원은 박사학위과정 2년으로 되어있다. 학사학위는 연구원을卒業,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생활을 한 후 당해 학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되고, 박사학위는 학사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소정의 연구실적과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로서 박사학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된다.

韓國의 경우 4년제 大學의 대부분이 大學院에 석사및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있는데 비해, 北韓에서는 '71년 현재 政務院 各部·各委員會 직속의 科學院, 社會科學院, 醫學科學院, 教育科學院, 農業科學院 및 김일성 종합대학과 그밖의 4개 大學만이 박사학위과정을 두고있고, 教育委員會 직할 23개 大學만이 학사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있다.⁴⁷⁾

黨의 成分이 좋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黨에서 進學의 機會를 부여하고 있을 뿐아니라,學位 통과 여부는 黨의 信任과 忠誠度에 크게 左右된다.

이외에 綜合軍事學 卒業試驗 合格者로서 2-3년제 대학은 인민군 예비하사관, 4-6년제 대학은 인민군 예비군관으로 任官시켜 대부분 社會로 進出하여, 有事時에는 現役으로 소집하게된다.

2. 卒業後 職場配置

대학의 경우, 所定の 課程을 마치면, 卒業 6개월전부터 각자에게 職

註47) 朝鮮中央年鑑(1965年版), P.170

場配置에 필요한 이력서, 자술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總·學長 및 사
로청 위원장의 개인평정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등 서류를 구비, 김일
성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김책 공업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國際關係大學, 平壤理科學大學등 中央的 규모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設
立한 大學中 人文系는 中央黨에, 自然系는 政務院에 제출하고, 地方的 규
모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대, 농대, 의대, 사대, 교원대등은
市·郡 人民委員會 勞動部에 제출하게 된다. 48)

人文·社會系 大學의 경우, 中央黨 幹部級 指導員을 해당 대학에 派遣,
總·學長, 社勞靑 委員長 및 졸업예정자와 職場配置를 위한 個別面談
을 가진다.

그리고 中央黨, 政務院, 市·郡 人民委員會에서 각기 심사, 결정된 해당
職場은 大學 卒業式場에서 卒業式이 끝난 후, 配置된 職場을 발표하고
配置帳을 교부한다.

이와같은 직장 배치 과정에서, 첫째 기준은 家庭背景과 黨性, 둘째 기
준은 社會團體生活 評點, 셋째 기준은 學業成績으로서, 黨·機關 幹部 자
제들은 평양 및 대도시의 행정관료, 심지어 中央黨 指導員에까지 進出하
며, 비 간부 당원 자제들은 지방 중·소 도시의 하급기관, 기업소, 기술
연구 분야, 학계 등으로, 비 당원 기타 자제들은 공장 및 농장의 생산
현장, 농촌의 벽지학교, 심지어 광산 등지에 배치시키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김일성 대학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黨·政權 機關 및 人民
經濟 各분야의 핵심 간부후보로 등용되고 있는데, 현재 政務院內, 次官級

註 48) 國土統一院, 北韓共產体制의 實態, 1981. P.84

에 해당하는 副部長級 이상 간부의 3이상이 이 대학 출신들로서 새로운 支配階級을 形成하고있다.

한마디로, 北韓에서는 졸업후 취업하고 싶은 지역, 분야, 직종 등 職業選擇의 自由는 배제되고, 졸업생의 능력, 취미, 소질, 희망 따위의 개인적인 적성은 참고자료일뿐, 전반적으로 黨的 基準과 人力 計劃에 의거, 해당 직장을 결정, 배치하고있다.

3. 海外留學生 派遣

최근에, 北韓이 종래에 비하여 상당수의 海外留學生을 派遣하고있는 것은 극도의 閉鎖성과 對外交流의 制限으로 인해 外交, 貿易, 先進 技術 習得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겪어야했던 난관을 타개하는 方案일 뿐아니라 주로 親北國家를 대상으로 인근 國家에의 침투 거점 확보와 國際統一戰線 形成을 통한 韓國의 孤立化를 기도하기 위한 對內外 弘報活動등 政治的 目的을 겸하고있다.

北韓의 留學 趨勢를 보면, '46년 黨員에 한하여 共產主義 理論教育과 주요 產業施設을 운영하기 위하여 技術者養成을 겸해 249명의 대학생을 소련에 파견한 것을 효시로, '47 - '48년에는 人文系를 포함하여, 社會主義 國家建設에 필요한 기술자 양성을 위해 소련·중공·동독·체코 등 주로 東歐共產圈에 국한시켰던 것이다. 그후 6.25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약 2천명의 고위층 자녀들과 일부 전쟁고아들을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유학을 시켰다.

그 결과 귀국한 유학생들이 극한적인 내핍생활과 폐쇄적이고 경직된

政治, 社會, 經濟體制에 대하여 비판적 경향이 나타나는데다가, 동독 등 東歐 先進共産圈에 파견됐던 유학생중에는 '56년 '헝가리 의거'에 영향을 받아 대거 25명이 서독등으로 탈출, 亡命을 요청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北韓은 '66년 8월, 소위 '自主路線'을 표방, 閉鎖政策을 더욱 강화하면서 유학생들을 대부분 소환시키고, 海外工作活動을 수행할 特殊要員 養成을 위해 극소수의 인원만을 파견시켰다. 49)

'70년대 접어들면서 先進 科學技術導入과 外交活動 強化를 위해 外國語 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폐쇄적인 유학정책을 완화, 종래 共産圈에만 국한했던 것을 親北 左傾 非同盟圈과 일부 西方國家에도 점차 유학생을 파견하게 되었다.

유학 대상국가 및 분야를 보면, 소련, 중공을 위시하여 동독, 유고, 쿠바 등 아직도 共産圈에 치중, 특히 재래식 의료기술수준과 낙후된 시설에 의존하고있는 北韓이 정책적으로 先進 醫學技術導入을 위해, 소련에는 醫學分野에 대거 350여명의 유학생을 파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타 소수의 軍事學및 自然科學分野의 유학생이 파견되고 있다. 中共에는 가장 많은, 1천여명의 유학생이 주로 經工業分野의 技術習得에 力點을 두고있다고한다. 그밖에 동독과 쿠바에 語學研修生을, 유고 등 東歐 先進共産圈에 소수의 醫學, 工學專攻 유학생이 파견되어있는 것으로 把握되고있다.

親北 左傾 非同盟圈의 경우, 이라크, 알제리아, 이란, 파키스탄, 에집트,

註 49) 内外通信, 89 號, (서울 : 内外通信社, 1978.9.13)

시리아등 주로 中東產油國에는 語學研修에 중점을 두고있는데, 그 이면에는 제 3세계에 대한 外交및 海外工作活動을 위한 거점확보에 주목적을 두고있다. '77년 1월 13일 北韓과 文化協定을 체결한 바 있고, 英語를 常用하는 英聯邦國인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레온에는 英語研修와 北韓의 對 아프리카 外交의 거점확보에 주력하고있다.⁵⁰⁾

한편 칠레및 아르헨티나와의 단교와 최근 貿易代表部가 설치돼 있는 페루와의 관계가 惡化되어있는 狀況에서, 英語常用國으로서 英聯邦國인 가이아나를 中南美의 침투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학 연수생을 대거 100명 이상 파견하고있다.⁵¹⁾

西方圈에 대한 유학생 파견실태를 보면, 프랑스에 가장 많은 30여 명이 어학 연수를 겸해 컴퓨터 기술연수생이 파견된 바 있고, 스웨덴, 노웨이, 핀란드등 스칸디나비아 諸國에 駐在國의 語學研修生을 각기 약간 명씩 파견, 프랑스와 더불어 이들 국가를 對 西方圈 外交의 據點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있는 형편이다. 이밖에 '77년 6월이래 日本에 10명 내외의 기술연수생을 파견, 이들은 僑胞들이 집결되어 있는 日本社會에서의 特別工作 任務까지 띠고 있다고한다.

北韓의 이와같은 海外留學 緩和措置에 따라, '56년 '항가리 의거' 때 서독등 自由世界로 脫出, 亡命한 前例에 비추어 유학생들의 自由思潮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事前·事後의 思想教育과 統制를 強化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애초에 出身成分과 黨性이 특별히 좋지않으면 파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있다.

註50) 外務部, 各國便覽, 1980. PP. 240-241

51) 内外通信, 89호, (서울:内外通信社, 1978.9.13)

Ⅷ. 北韓의 「人間改造」 모델

“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데서 기본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믿고있는 人間改造에 관한 北韓의 基本態度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모델을 抽出, 人間改造의 工程과 方式을 究明하고 그 다음으로 소위 ‘人間改造事業’에서 必然的으로 야기되는 北韓 靑少年들의 可憐한 體位狀態, 意識構造 그리고 그들의 非行에 대하여 分析, 檢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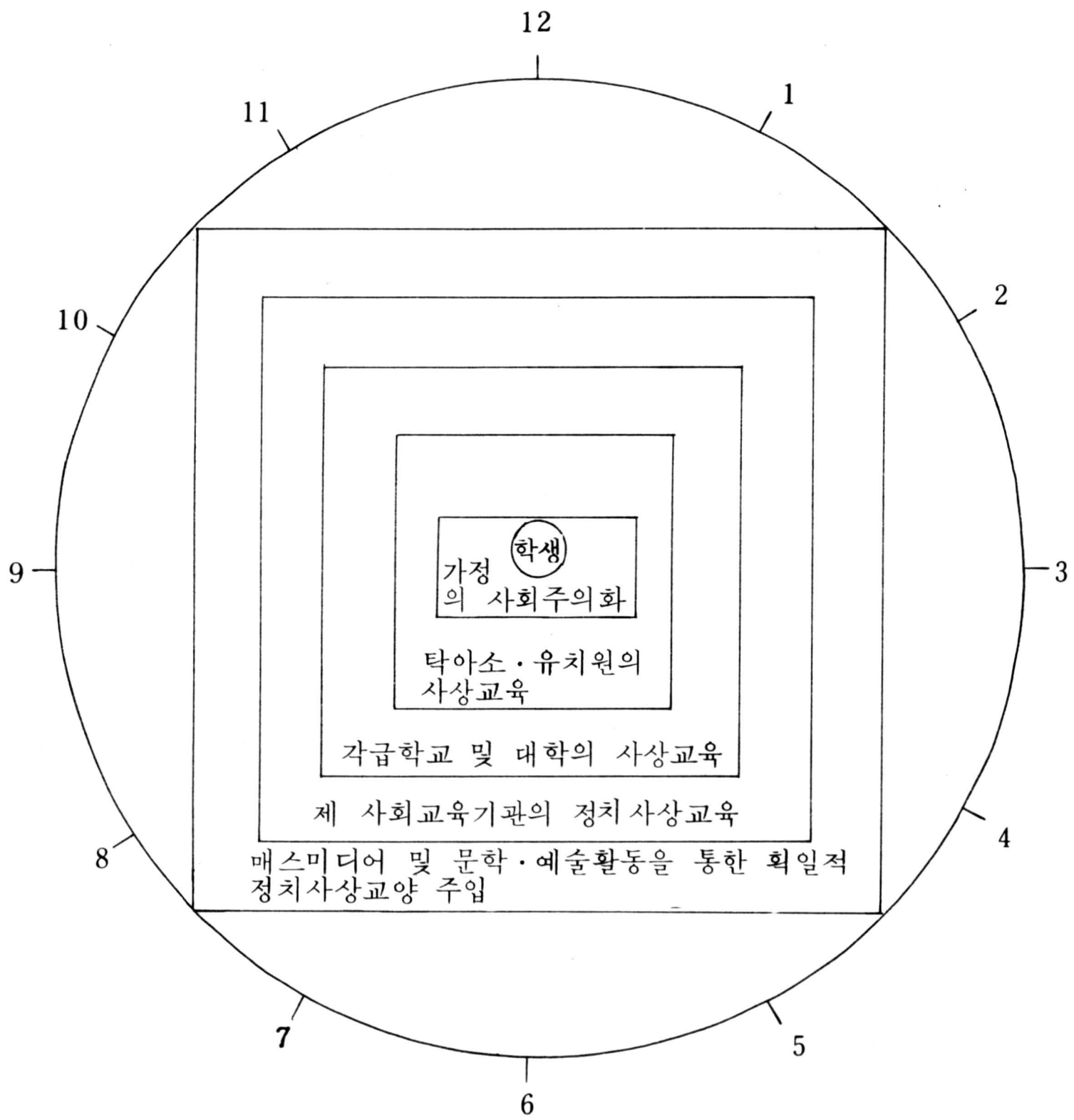
1. 「人間改造」工程 모델

〈圖表 7〉의 「人間改造」工程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대학생으로 成長하기까지 時間的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人間改造作業을 실시해야 한다는 原則 아래, '76년에는 ‘어린이 보육 교양법’을 만들었다. 그에 의하면, 대체로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위탁되어 生父, 生母 대신에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로 부르고, 생각하도록 하기위해, 소련의 生理學者 I.P. Pavlov의 개의 實驗에서와 같이 條件反射의 概念을 援用하여 먹이를 줄 때마다 김일성 아버지가 준다는데서 부터 출발하여, 만 4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 들어가고, 就學前 유치원 1년을 義務教育化하여 共產主義 理念注入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다.

북한은 早期教育이 效果的이라는 취지에 따라 就學 年령을 만 7세에서 6세로 낮추었으며 또한 과목편성에 있어서도 共產主義 人間改造 敎養에 치중하여, 共產主義 道德, ‘金日成 革命活動 研究’ 등의 과목을 新設,

〈圖表 7〉

「人間改造」工程 모델



政治思想敎養을 강화해오고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에서의 政治思想 敎科 目은 ‘黨 鬭爭史’, ‘마르크스·레닌主義 基本’, ‘共產主義 道德’ 등 최근에는 기초敎育 및 사상敎育이 60%를 차지하고있고, 심지어 數學 등 自然科學 敎科書의 내용조차 최대한도로 정치사상적인 내용을 삽입시키고 있다.

대학에서는 正規授業을 비롯하여 全體 課外活動, 軍事訓練, 심지어 寄宿舍生活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학생활이 정치사상敎育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앞에서 상세히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인테리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공간적으로는 家庭에서부터 출발하여, 各級 學校, 各種 社會敎養機關 및 심지어 매스 미디어등 전체 社會環境이 학생들에 대한 人間改造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세포이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 소년궁전, 학생 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설들은 학생 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敎育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⁵²⁾ 고 강령으로 명시한 대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人間改造의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全體 時間과 空間의 各種 單位가 「人間改造」의 工程段階로 이용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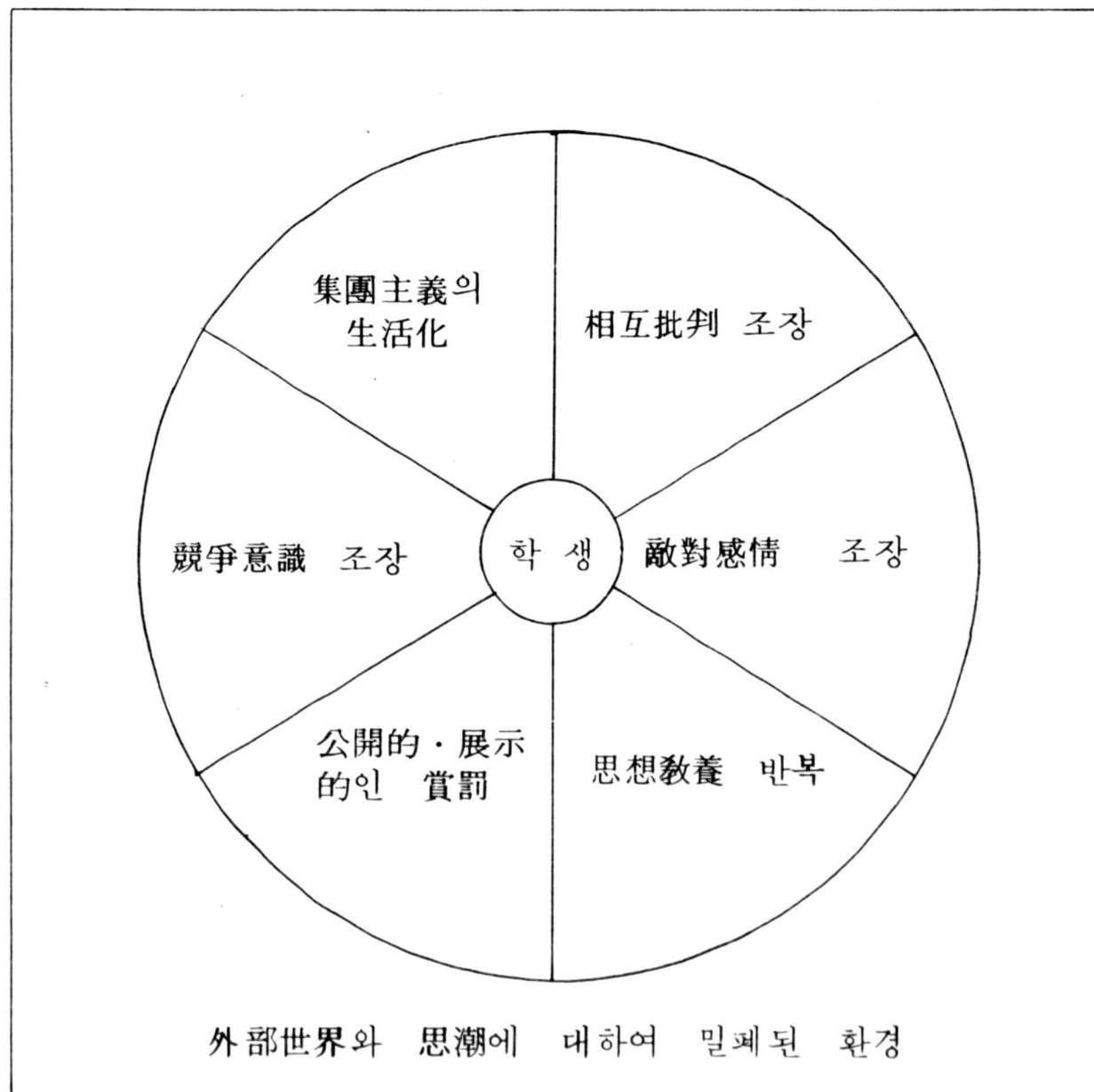
註 52) 김일성 저작선집, 제 7권 (1978), pp. 379-380

그것은 工程모델의 圖式과 같이, 즉 시계구조의 操作처럼 정밀하게, 아동의 成長段階에 따라 단위공간의 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뇌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도록 되어있다.

2. 「人間改造」方式 모델

〈圖表 8〉의 「人間改造」方式 모델의 前提條件으로서, 우선 북한

〈圖表 8〉 「人間改造」方式 모델



사회 전체를 세계에서 가장 폐쇄시켜 놓고, 外部世界와 思潮에 밀폐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주민들로 하여금 批較手段과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말살시켜 놓고있다.

東歐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알바니아까지도 '66년부터 西方側에 門戶를 開放, 관광객 유치를 적극화하고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는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여행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人間改造」方式을 分析해 보면 첫째로, 소위 '사회주의 헌법'에서 천명한대로, '集團主義 原則'⁵³⁾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金日成과 黨이 원하는 대로 거의 완벽하게 個人의 言語와 思考와 行動을 統制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들의 해설을 빌면, '집단주의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라고까지 美化시키고 있다.

둘째로, 相互批判을 조장함으로써 人間改造 效果를 提高시키고 있다. 예컨대, 부모·형제, 교사, 동료의 反 共產主義的 言行을 폭로, 고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인간개조가 잘된 사람으로 인정받고있다는 사실등이다.

셋째, 人間改造를 위하여 敵對感情을 조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민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명성 아버지 얼굴의 흠집은 열한살 때 미국놈이 낸 것이다"라는 식으로 도처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反帝, 反美·反日, 反韓등 敵對感情을 조장한다.

註 53) 사회주의헌법 (1972.12.27), 제 4 장 제 49 조

네째, 북한에서는 인간개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條件反射式으로 행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反復的 思想教育을 통하여 共產集團의 教育場面에서 흔히 쓰고 있는, 소위 ‘洗腦’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⁵⁴⁾

다섯째, 公開的·展示的 眞罰을 주는 人間改造 方式으로서, 예컨대, 부모를 告發하는 것을 英雄視하여 널리 一般化시키고, 반대로 집단규율을 위반하면, 思想檢討會가 학급별 또는 학부별로 개최되어 대중 앞에서 人民裁判式으로 自我批判을 하게 하는 따위로 본모기를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여섯째, 인간개조를 위하여 競爭意識을 助長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前述한 바와 같이 소위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처럼 目標 達成을 위하여 독찰과 公開的인 賞·罰로서 個人 對 個人, 集團 對 集團간에 경쟁의식을 한 없이 조장하는 방식이다.

以上の 「人間改造」方式 모델은 각기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기 보다는 相互複合的으로 교묘히 사용된다. 말하자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動員하여 人間改造를 極大化시키고 있다.

3. 「人間改造 事業」의 結果

그들이 말하는 소위 「人間改造 事業」으로부터 必然的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抽出해 보면,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유치원생활,

註 54) 前掲書, 北韓 共產体制의 實態, p. 92

어머니의 과도한 노동 때문에 집에 돌아가도 어머니가 없는 가정, 인민 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소년단, 사로청, 여성동맹, 기숙사등 각종 집단·조직생활로 인하여 가정과 거의 격리된 생활은 人間의 本能인 愛情의 慾求를 극도로 제한시키고 있다. 원만하고 人間愛를 가진 人格이 形成되지 못하고, 反射的으로 집 지키는 맹견과 유사한 被害意識과 난폭한 攻擊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가장 큰 社會問題가 강탈과 폭력의 성행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북한의 인민학교 1학년 산수 교과서에 “미국놈 탱크가 50대 지나 갑니다. 인민군 아저씨가 30대를 까부셨습니다. 앞으로 몇 대를 더 까부셔야 합니까” 하는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쁜 것의 원인은 帝國主義, 美國, 韓國, 日本 때문임을 인식시키고, 탁아소 시절부터 사망할 때까지 反帝, 反美, 反韓, 反日意識 및 증오심을 고취시키고있다. 이와같은 教育環境에서 자라난 북한의 청소년들이 狂的인 好戰性과 戰鬥意識으로 충만되어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金日成을 神的 存在로 찬양하며 그를 신앙하도록 偶像化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아들 金正日에게 권력을 세습하는데 따른 金日成-金正日 體制 부각을 위해, 金日成을 太陽에, 金正日을 嚮導의 별에 비유하면서 갖은 家系偶像化 作業을 벌이고있다. 인민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태산보다 더 높고 바다 보다 더 깊은 원수님의 은덕을 생각할 때 죽는 그날까지 수령님께 충성하련다’ 처럼 似而非 宗教의 教主, 金日成에 대한 盲從性은 狂信徒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탁아소, 유치원 시절부터 전쟁놀이를 필두로 14세부터 16세까지 불

은청년근위대, 18세부터 45세까지의 로농적위대, 대학생들의 대학교도대 등 軍事訓練과 義務勞動制에 의한 努力動員은 거의 일생동안 강요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해 보면, 生과 死, 敵과 我와 같은 極限的인 思考方式과 거의 맹수에 가까운 잔인성을 가진 인간이, 金日成의 規格화된 부속품과 같이 量産되고있다.

가. 北韓 靑少年의 體位狀態

북한에서 소위 ‘人間改造 事業’이라고 하는 可憐한 人間實驗의 結果 奇想天外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體位面에서 키가 크기는 커녕 도리어 줄어들고있다는 사실이다.

金日成은 ‘키크기 운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⁵⁵⁾

그 지시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잘 먹인다고 하여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이기만 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몸이 모로 퍼지고 키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키를 크게 하는데서 기본은 체 육활동입니다. 지금 사로청 조직들이 키크기 운동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키가 크지 못합니다. 남자들도 키가 크지 못하고 여자들도 키가 작습니다. 지난 2.8절에 어느 한 인민군 부대에 나가 새로 입대한 군인들을 만나 보았는데, 키가 160cm도 못되는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에게 2년후에 다시 오겠는데 그동안에 키크기 운동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키를 165cm 이상되게 만들라고 과업을

註 55) 김일성,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대회> (1977.2.25) 연설

주었습니다. 키크기 운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키가 크도록 체격을 개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체격을 개조하는 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⁵⁶⁾

북한에서는, 이제 人間改造, 즉 思想改造에 그치지 않고 體格改造를 실시하였으며, 그것도 革命이라고 하면서 키를 크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먹일 자신은 없었던지, 잘 먹이면 키가 크지않고 모로 퍼지기만 하니 운동을 많이 시키라고 한다. 營養失調, 過勞, 非人間的인 教育方法과 環境 때문에 키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은 깨닫지 못하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키크기 운동을 하라고 하니, 세상에 둘도 없는 운동이요, 혁명이요, 지시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혹사하고 잘 먹이지 못하고, 마치 동물적인 교육방식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점차 畸形的인 아이들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標準體位를 극비에 붙이고 있지만, 월남 귀순자들의 證言과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최근 휴전선을 넘어 월남한, 적어도 북한에서는 전장하다고 하는 20대의 現役軍官 및 士兵 10명의 평균신장이 161.4cm, 평균체중이 56.4kg, 이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이록재, 송경호 165cm, 가장 작은 사람이 이 석모 156cm, 이들의 평균신장은 한국의 15세 남자의 평균 신장 161.8cm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일성의 연설 내용중에 160cm도 못되는 청소년들이 많고 그들의 '키크기 운동'의 목표가

註 56) 김일성 저작선집 제 7권 (1978년도판), pp. 286-288

〈表 - 4〉 '70년대 이후 월남귀순자 체위상태

대 상 자	신 장 (cm)	체 중 (kg)
권 정 훈	162	53
이 석 모	156	48
안 찬 일	160	54
송 경 호	165	58
이 록 재	165	59
이 영 선	162	62
배 병 관	162	61
이 영 우	160	62
강 형 순	160	55
유 대 운	162	52
평 균	161.4	56.4

165cm라는 사실 등을 分析, 綜合해 볼 때 북한 대학생층의 평균 신장이 162cm 이하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의류, 신발, 교구등 국제 규격품 제조를 위하여, 工業振興廳에서 발표한 〈表 - 5〉의 國民 標準體位調査 결과에 의하면,⁵⁷⁾ 현재의 40대의 평균 신장이 164.9cm로서, 북한은 분단 이전보다 오히려 3cm 가까이 키가 줄어들었고, 한국의 대학

註 57) 東亞日報, 1980. 6. 26

〈表 - 5〉

韓國民의 年齡別 體位平均値

性別	年 齡	키 (cm)	몸 무게 (kg)	가슴둘레 (cm)	허리둘레 (cm)	목 둘레 (cm)	엉덩이 둘레 (cm)	발길 이 (cm)
男	6	113.9	19.7	57.0	52.5	26.7	57.4	17.8
	7	119.1	21.3	58.4	52.6	26.2	58.2	17.7
	8	124.4	24.0	60.4	53.9	26.9	60.1	18.6
	9	129.5	26.7	61.9	55.3	27.6	63.1	19.5
	10	133.3	29.1	65.0	56.9	28.1	65.3	20.0
	11	138.3	32.6	67.4	58.5	28.8	68.3	20.8
	12	142.6	34.7	69.3	59.8	29.4	70.3	21.8
	13	149.8	40.1	73.1	62.8	30.4	74.6	22.6
	14	156.7	45.6	76.5	64.8	31.6	78.8	23.5
	15	161.8	50.3	80.1	66.9	32.7	82.6	23.7
	16	165.5	54.3	82.5	68.4	33.5	85.0	24.0
	17	167.6	56.7	84.5	69.7	34.0	86.8	24.4
	18 ~ 19	166.8	58.8	87.1	72.2	34.7	88.6	24.8
	20 ~ 24	167.7	61.3	89.0	74.5	35.3	90.2	25.3
	25 ~ 29	167.0	61.7	90.3	75.0	35.8	90.6	25.0
	30 ~ 34	166.1	60.8	89.8	75.9	35.7	90.2	25.0
	35 ~ 39	166.0	62.2	91.7	75.5	36.2	91.7	24.7
	40 ~ 44	164.9	61.7	91.5	77.7	36.1	91.6	24.6
	45	162.9	56.7	87.8	74.4	35.4	88.4	24.4

性 別	年 齡	키 (cm)	몸무게 (kg)	가슴둘레 (cm)	허리둘레 (cm)	목둘레 (cm)	엉덩이 둘레 (cm)	발길이 (cm)
女	6	112.5	19.1	56.4	51.2	26.0	59.5	17.5
	7	116.9	20.5	57.3	51.1	26.2	60.0	17.5
	8	124.1	23.6	59.6	52.4	26.5	64.0	18.6
	9	127.5	25.4	61.8	53.3	27.1	66.0	19.1
	10	133.8	28.8	64.2	55.2	27.9	68.3	19.9
	11	139.6	32.3	66.8	56.9	28.5	72.1	20.7
	12	145.2	36.8	71.0	58.4	29.6	76.2	21.6
	13	149.3	40.9	74.6	60.6	30.4	79.6	21.9
	14	152.3	44.6	77.6	62.3	31.1	82.6	21.9
	15	154.6	48.5	81.2	64.7	32.0	85.7	22.2
	16	155.2	51.0	83.0	65.9	32.4	87.3	22.5
	17	155.5	51.4	83.6	66.5	32.5	87.8	22.5
	18~19	155.7	53.0	85.5	67.6	33.3	89.2	22.9
	20~24	155.5	52.7	85.6	67.9	33.4	89.1	23.0
	25~29	155.2	51.0	84.8	68.0	35.3	89.7	22.4
	30~34	153.7	51.9	85.4	70.1	34.7	89.9	22.4
	35~39	154.2	52.4	86.7	72.0	35.7	91.2	22.9
	40~44	154.3	53.7	88.0	73.7	34.4	92.0	22.8
	45	151.9	53.0	88.4	74.9	36.2	92.4	22.4

생층의 평균 신장이 167.7cm로서 남·북한 약 5.7cm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분단 이전보다 무려 2.8cm가 더 커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일성 정치대학을 수료하고 前 人民軍 小尉이며, 政治保衛指導員이었고, 키 160cm, 나이 26세인('55. 4. 11일생) 강형순이 1979년 7월 5일 귀순후 서울시내 외출시의 소감중에, “이곳 사람들은 키가 모두 큰데 내 키는 너무 작아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도 지장이 많겠다. 북한에서는 내 키가 작지 않았다”⁵⁸⁾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북한에서는 세월이 감에 따라 소위, 인간개조가 되었다고 하는, ‘새 세대’들이 신체적으로는 도리어 작아지고있는 奇現象에 逢着하고 있다.

키가 작다고 ‘왜놈’이라고 하던 日本人들이 韓國人보다 體位가, 특히 신장이 크게 향상되었듯이, 國民體位는 國力과 社會福利의 尺度로서, 분단 후 남북간 ‘잘살기 경쟁’에서 이같은 實證的인 사실로서, 그 결과는 自明해진다. 또한 이것은 분단 이래 철두철미하게 실시한 동물에 가까운 非人間的인 人間改造教育의 心然的인 現象으로서 북한 동포들의 體位를 발달시키기보다는 劣性化 내지는 退行시키고있다.

나. 北韓 靑少年의 意識構造

북한에서의 早期 幼兒教育에서 강조되는 政治社會化 作業은 북한의 戰後, 새 세대에게 있어서 주효했을 것이다. 즉 하나의 자극과 지령에

註 58) 귀순 소위 강형순 증언(1979. 7)

일사분란한 同一反應을 나타낼 뿐인, 기계적 인간, 획일화된 人間群의 量
産過程에서 그들 집권층 공산주의자들은 의도하는 바 소기의 성과를
얻고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저와같이 集團적으로 條件化되고, 強化되
는 북한의 소위 '새 세대'는 장점 혹은 강점만 지니는 것일까? 거
기에는 중대한 오류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政治社會化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부러질지언정 휘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청소년의 意識構造上 굳
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을 抽出해 보면, 意識과 行動의 規範化, 價値
觀의 單純化, 金日成과 黨을 신앙처럼 숭배하는 教條的인 忠誠心, 오랜
내핍생활로부터 단련된 極端的인 勤儉節約性, 명령만 있으면 條件反射的으
로 행동하는 戰鬪的인 決斷性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들
의 약점은 결국 그들의 강점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획일적 이데올로기의
一般化로 命令體系는 一元的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受動的인 現實觀과 被
害意識, 創意力の 缺如, 批較, 分析, 綜合, 批判能力 缺如, 自立·自律性の
缺如, 和合과 妥協心の 缺如등 말하자면, 外界에의 適應力이 극도로 결핍
되어 있음이 입증된다.

북한의 기성세대에게는 民族의 同質的인 要素들이 內在할 것이나, 幼兒
期로부터의 意圖的인 學習과 訓練을 통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의해 획
일화 되었으며, 共產革命을 唯一한 信條로 條件化되고, 強化된 북한지역에
서 자라나는 新 世代들과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한, 對話·交流·協力을
통한 平和的인 統合에의 努力은 이와같은 意識構造와 價値觀의 異質化로
平和統一의 內在的인 沮害要因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

을 수 없다.

4. 「人間改造」에 따른 非行

北韓의 生活規範이자 教育原理인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한 人間改造 工程과 方式에는 必然的으로 逆機能이 있기 마련이며, 그에 따른 靑少年 들의 非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原因을 分析해 보면, 黨의 組織的인 行動規制와 思想監視에 대한 緊張, 社勞靑의 노력동원과 각종 노력경쟁운동에 따른 目標達成과 實績에 대한 強迫感, 대학 교도대의 現役을 방불케 하는 軍事訓練에 대한 過勞, 기숙사의 군대 內務生活化로 私生活侵害에 대한 反撥, 이밖에 潛在的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逆機能으로서, 당 간부, 당원, 비 당원 자제간 및 黨員 學生과 非黨員 學生間의 異質感에 따른 內在的인 갈등 등 그 反作用으로서 反 社會的인 行動 즉, 청소년들의 非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實態를 보면, 대부분 고등중학 재학 및 졸업생들로서 非黨員, 越南, 肅淸 및 責罰者, 北送僑胞 등의 불평불만 계층의 자녀들로 구성, 郡 所在地 以上, 北韓 全域에 조직,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대도시 평양, 함흥, 청진 등에는 상당수의 폭력 집단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⁵⁹⁾

註 59) 월남 귀순자 이영선씨가 '72-'75년 10월 사이에 함남 신흥지역에 살면서, 불량 청소년 집단에 가담한 내용의 증언

실제 비행에 대한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 사회의 부패, 부조리상을 풍자한 反體制的인 活動類型에는 ‘不穩 노래 지어 부르기가 있으며 그 실례를 보면, “개 중에서 삼살개 김일성놈 개대가리, 담배 콩초나 물고서 설사약만 찾누나……以下略” 이 노래는 ‘74년경 불량 청소년들이 노래가락에 맞춰 만든 것으로 김일성을 영악스런 삼살개에 비유, 북한사회의 부조리상을 풍자한 내용이며 각 지역 불량배 집단에는 유행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金日成 讚揚 벽보훼손’ 과 ‘反 金日成 隱語使用’ 등이 있으며, 그 실례를 보면, 현수막 또는 벽보등에 “김일성 동지 만세” 등이 게시되어 있으면, 글자의 받침을 모두 지워, “기어서 도지 마세”와 같이 고치는 행위가 은밀히 성행한다고 하며, 또한 학교 변소, 담벽등에 붙은 만화와 비방 내용을 부착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⁶⁰⁾

이와같은 사상문제와 관련되면, 政治保衛部員이 야간 잠복 및 필적 추적등으로 색출코자 갖은 짓을 한다고 하며, 발견되면 고등중학생은 黜學시켜 노동교양소에 수감되고, 대학생의 경우 黜學과 동시에 교화소, 즉 형무소에 보내거나 산간벽지나 오지등의 ‘특수 지역’에만 살 수 있게 거주지 제한을 당하여, 사회생활을 엄격히 통제받고 살아야한다.

북한 청소년들의 非行에 관해서는 폭력, 강탈, 강간등이 가장 곤란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귀가해도 부모들이 직장에서 귀가하는 밤 10시경까지는 저희들끼리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방

註 60) 上同(월남 귀순자 이영선씨의 진술내용)

치되기 마련이란 것이다. 커갈수록 폭력은 난폭해지는 것으로, 내용인즉, 방과후 때를 지어다니면서 폭력, 강탈, 강간 심지어 살인등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었으며, 북한에서의 反社會的 行動은 가속적으로 극악해지고 있다고 한다.⁶¹⁾

東歐 先進共産圈의 경우, 특히 체코등에서는 脫 家庭的 早期 集團 教育이 아동의 惶恐성, 정서의 불안정등을 결과지우는 사실을 중시하고 그 실시를 중지한 바 있는데, 이 점은 북한에서의 집단적 조기교육의 실시가 얼마나 가공할 부작용을 야기시킬지는 미루어 예측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주목할 일인 것이다.⁶²⁾

註 61) 전 노동당 대남 연락부 부장급으로 '76년 9월 귀순한 金用珪씨의 증언 내용

62) 統一政策, '79년 第5卷 第1號, 平和統一研究所, p. 206

IX. 結 論

一黨 獨裁體制를 永久化하기 위하여 政治思想教育을 強化하는 點에서는 모든 共產國家의 공통된 特徵이라고 할 수 있으나 北韓만의 特徵은 一人獨裁體制를 永續化 내지는 世襲化하기 위한 政治教化를 強化하려는 點에 있다.

北韓이 의도하는 政治思想教育의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 傳統文化의 계승 機能을 擔當하는 家庭의 教育的 機能을 말살하고있다. 다시 말해서, 傳統文化 抹殺政策과 家庭教育 抹殺政策으로 早期 政治教化政策을 強化하고있는 點이 그들의 政治思想教育 政策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大學에서는 女學生 全員을 ‘朝鮮 民主 女性同盟’ 大學委員會라는 勞動黨 外廓團體에 加入시켜, 女學生들에 대한 政治社會 組織生活에의 參與를 積極 助長하여, 女性들에 대한 脫家庭化의 尖兵들을 量產하고있다.

그들 政治思想 教育의 目的은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造型함에 있고, 이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지켜야할 原理로서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實現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生後 3個月부터 託兒所에 맡겨진 이래 死亡할 때까지 일평생 劃一的인 政治思想教育 注入으로 人間改造를 最大限 極大化하고 있으며, 勞動階級化 및 勞動力 榨取와 補充을 위해 갖은 名目으로 競爭을 붙여 가며 組織的으로 生産勞動에 參加시키고있다. 또한 國家目標는 軍事 目標로 具體化되는 것이다. 北韓 共產集團의 國家目標는 南韓의 赤化

統一에 있다. 이를 위해 全 大學生에게 軍事訓練을 強化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특히 全 大學生을 常備戰鬪兵化하여야만 하는 國家的 戰略이 現實的으로 要求되었을 것이다.

“社會主義 社會에서 學校는 革命化의 本據地이며 文化革命의 據點이다. 學校는 教授教養事業을 통하여 思想革命, 文化革命 遂行에 이바지한다”⁶³⁾ 고 천명한 바와 같이 大學을 革命의 道具化하고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北韓에서 大學이란? 플라톤 이래 傳統이 되어온 眞理를 探究하고 學問을 研究하는 人格의 道場이 아니라 大學의 勞動階級化, 大學의 兵營化, 大學의 革命基地化를 통해 金日成과 黨에 몸바쳐 충성할 革命人材 養成所로 變質되어왔다. 그것은 마치 動物園의 우리속에서 조련사가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革命戰士를 사육하는 것과, 그 手段과 方法面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偉대한 首領 金日成 동지와 黨 中央(金正日)에 대한 忠실성은 우리 綜合大學의 제일 생명이며 榮譽로운 傳統입니다.”⁶⁴⁾ 라고 한 바와 같이, 北韓의 大學生들은 金日成과 그의 世襲後繼者 金正日, 더 나아가 그의 집안과 家系를 위해 목숨바칠 革命鬪士로 길러지고있다.

註 63) 김일성 저작선집 제 7 권 (1978 년도판) P. 392

64) 김일성 종합대학의 당 책임비서인, 부총장 지창익, '80년 10월 로동당 6 차대회에서의 發言 引用